



[경제종합] 롯데 바이오 사업 진출 美 BMS 공장 인수 03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 | | | |
|------------|----------------|-----------|-----------------------|
| 코스피 | 2604.24 (0.00) | 코스닥 | 853.08 (0.00) |
| 금리 (미국 3년) | 2.911 (+0.011) | 환율 (원-달러) | 1284.20 (-4.40) (13일) |

高물가·高금리에 기름붓는 高환율... 韓 경제 '안갯속'

치솟는 원·달러 환율 1300원 위협 美긴축, 中경기둔화 등 악재 산적 금융시장, 원화 약세 장기화 예상 기업 등 외채상환 부담 가중 우려



유도이미지

최근 환율 상승(원화값 하락) 지속과 증시 하락으로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지난 주말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지만 저점이 240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다 원화값 하락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다. 전문가들은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상단을 1300원까지 열어놓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다른 많은 국가들의 환율이 절하되고 있는데, 원화의 절하 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심한 편이 아니다"라고 시장을 안심시켰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달러당 원화값은 1284.2원에 마감했다. 전 거래일(1288.6원)보다 4.4원 하락했지만 이는 일시적이라는 평가다. 금융시장에서는 원화값 약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스피도 지난 13일 2.12% 상승해 2600선을 회복했지만 최근 지속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당분간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원화값은 1300원선까지 위협받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288.6원에 마감했다. 특히 장중에는 1291.5원까지 치솟는 등 전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1280.2원)을 다시 한 번 돌파했다. 이는 무려 5거래일 연속 연고점 경신이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290원을 넘어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3월 19일(1296.0원)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이처럼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데는 우리 경제의 대외 리스크 요인과 환율상승 기대에 대한 시장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는 국제원자재 수입, 중국 경제, 반도체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중국 경제 불안,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 등의 대외 리스크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미 연준의 긴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원화 약

세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3%로 2개월 연속으로 고물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8.5%)에 이어 두달 연속 8%대를 기록했다. 시장예상치(8.1%)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과일 연준 의장은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단번에 0.5%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최대폭 인상이기도 하다.

문제는 대외 경제 여건이다.

통상적으로 원화 약세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수출기업의 경우 달러로 물건을 팔기 때문이다. 즉, 달러 강세(원화 약세)에 따라 매출액이 높아진다.

한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3억5000만 달러(16.9%) 늘어난 634억8000만 달러다.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석유제품,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돼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원화 약세는 러시아발 전쟁, 미 연준 긴축 및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발 악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환율은 민간 기업·금융기관의 외채 상환 부담에 대한 우려를 가중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靑 개방 첫 주말, 구름 인파

靑와대 개방 첫 주말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靑와대에서 시민들이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부품 대란에 카플레이션 현실화 (자동차+인플레이션) 완성차, 연식변경 신차값도 인상

현대차, 2022 그랜저 2~4% 인상 기아, 연식 변경 K8도 가격 올려 업계 "기본사양 확대적용 등 영향"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요동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의 코로나 도시 봉쇄 등 잇단 악재로 부품 물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격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완전 변경이나 부분변경,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1일 연식변경 모델인 '2022 그랜저'를 출시, 가격은 지난해 모델에 비해 2~4% 인상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본사양을 추가하면서 가격이 인상됐다는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2022 그랜저'는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와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를 전체 트림에 기본 적용했다. 또 인기 트림인 '르블랑'에는 상위 트림에만 적용됐던 스웨이드 내장재와 뒷좌석 수동 커튼 등을 기본 사양으로 추가했다.

또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같은 안전 사양을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기본 적용했다. 최상위 트림에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본 사양으로 장착했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2.5 모델의 경우 3392만원에서 4231만원, 가솔린 3.3 모델은 3676만원에서 4481만원(개별소비세 3.5% 포함)이다.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은 3787만~4606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모델보다 81만원에서 192만원가량 오른 가격이다.

기아가 지난 2일 선보인 준대형 세단 K8의 연식변경 모델도 기본사양을 추가하고 가격을 인상했다. 기아는 '더 2023 K8'을 출시하면서 고급 사양에 대한 수요가 높아 기존 프리미엄 옵션 패키지를 노블레스와 시그니처 트림에 각각 기본으로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노블레스 트림에는 ▲전동식 파워 트렁크 ▲뒷좌석 이중접합 차음글라스 ▲후면 전동 선커튼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를, 시그니처 트림에는 ▲스웨이드 내장재를 비롯 ▲후면 전동 선커튼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를 기본 사양으로 편성했다. 가솔린 모델 역시 ▲전동식 파워 트렁크 ▲뒷좌석 이중접합 차음글라스를 주력 트림인 노블레스에 기본으로 포함했다.

그러면서 가격은 적게는 39만원에서 128만원가량 인상됐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尹-바이든, 21일 한미정상회담 3대 의제

北도발대응·경제안보·국제기여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며 첫 정상외교 데뷔전을 갖는다.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이뤄지는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르게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자,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하는 것은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한국에 도착해 21일 한미정상회담을, 22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안보회의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떠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어떤 의제들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더불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글로벌 공급망 등 다양한 의제가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층 더 격상하는 한편, 북핵 문제 등 '대북정책 공조'가 최우선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최근에는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지역 안보를 논의할 때 북한이 의제의 가장 중심이 될 것"이라며 "역내 안보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윤 대통령과 함께 대화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감염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코로나19 대유행 중인 북한에 백신과 의약품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북한측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국제백신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간접 지원 방식을 통한 북한에 백신 제공을 지지하고 있다.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확진자 격리해제' 이번주 본격 논의... 20일께 결론 발표
▲ 이재명, 국힘 겨냥 "인천을 빛더미로 만든 세력" /사진 뉴스

▲ 대통령실, '여야 지도부 만찬 무산'에 "문 열려있다... 연락달라"
▲ 윤호중 "尹대통령 출근 탓에 시민 20~30분 지각" 비난



▲ '한동훈 법무부' 출범 임박...검수완박·검찰 인사 등 과제 산적 /사진 뉴스
▲ 국회 운영위 내일 개최...尹 비서실 인사 여야 격돌 예고

루나·테라 거래중단에 가상화폐 폭락... 투자자 '발동동'

〈한국산 코인〉

금융 이슈리포트

암호화폐 패닉

비트코인, 2.6만 달러까지 하락
암호화폐 전체 시총 1.14조 달러
작년 3조 달러... 1.86조 달러 증발

루나 고점대비 99%, 테라 57% ↓
바이낸스·고팍스 등 루나 거래 중단
"투자자, 매도세... 시장하락 지속"

비트코인이 지난 5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만6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휴지조각' 위기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최고가 대비 60% 폭락...불확실성 지속

15일 암호화폐 시장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2월 2만6000달러대까지 하락해 18개월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모든 주요 암호화폐가 급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2만7000달러 밑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 2020년 12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1789달러로 떨어졌다. 이더리움이 2000 달러 아래로 추락한 것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시총)도 1조

| # | Name | Price | 24h % | 7d % | Market Cap | Volume(24h) | Circulating Supply | Last 7 Days |
|---|------------------|-------------|--------|---------|-------------------|---|---------------------|-------------|
| 1 | Bitcoin BTC Buy | \$29,610.03 | -1.18% | -14.11% | \$564,089,326,061 | \$27,688,571,528 934,597 BTC | 19,040,206 BTC | |
| 2 | Ethereum ETH Buy | \$2,014.13 | -0.28% | -20.76% | \$243,396,303,509 | \$14,279,112,007 7,085,877 ETH | 120,783,162 ETH | |
| 3 | Tether USDT | \$0.9987 | +0.04% | -0.12% | \$75,647,277,903 | \$57,917,965,127 57,998,236,074 USDT | 75,752,120,651 USDT | |
| 4 | USD Coin USDC | \$1.00 | +0.02% | +0.02% | \$51,086,634,585 | \$5,369,970,854 5,368,816,644 USDC | 51,075,654,131 USDC | |

비트코인이 2만6000달러까지 하락 후 현재는 소폭 상승하고 있다.

/코인마켓캡

1400억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시총 1조 달러 붕괴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해 11월에는 약 3조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공포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격 낙폭을 키우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6월과 7월에 빅스텝(0.5%포인트)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전년 대비 8.3%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8.1%)를 웃돌아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투자심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배경이다.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코인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10으로 나타났다. 10 포인트의 공포·탐욕 지수는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서

는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오안다(OANDA) 아시아·태평양 제프리 헬리 수석시사연구원은 외신 인터뷰에서 "현재 상태가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유명 가상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는 트위터를 통해 "차트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약세에 접어들었다"며 "3만2000달러 선을 깨고 2만8000달러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흔들리는 시장 속 테라·루나까지 속삭여

최근 비트코인이 2만6000달러 대까지 떨어진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루나와 테라(LUNA) 사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암호화폐시장에 따르면 최근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가 고점 대비 각각 99%, 57%가 폭락했다.

UST는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존 코인보다 안정성을 높인 상품으로 미화 1달러와 1개 코인의 가치를 연동하는 코인이다.

UST를 테라 프로토콜에 팔면 1달러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1달러 상당의 루나를 지급하는 구조다. UST의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가치 보전 코인 루나를 팔아 UST의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것이 UST와 루나의 운용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며 투자자들이 UST를 판매하자 루나 가격도 함께 내려가면서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

UST와 루나는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0위 안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성장해 한국을 대표하는 코인이었다. 폭락 전 테라와 루나의 시총은 각각 23조원, 39조원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났기 때문에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 13일부터 루나 현물 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지난 10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루나와 UST는 보류 중인 출금 거래가 많아 일시적으로 출금을 중단시켰다"며 "네트워크가 안정적이고 보류 중인 출금량이 줄어들면 출금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가상거래소들 역시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를 중단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고팍스는 국내거래소 중 처음으로 오는 16일 오후 3시부터 루나와 테라에 대한 거래를 종료할 예정이다. 업비트와 빗썸 역시 공지를 통해 루나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안내했다. 업비트는 오는 20일 오후 12시부터, 빗썸은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거래가 종료된다.

코빗 역시 지난 10일 루나를 거래주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코인원은 10일 오전 8시30분부터 루나의 입출금을 일시 중단했다. 사실상의 상장 폐지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암호화폐시장 관계자는 "루나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비슷한 성격의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화폐)도 매도하면 시장 전반의 하락을 지속될 것"이라며 "가상자산법이 하루빨리 생겨 투자자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더 강력한 방역·전수검사 '혼란의 베이징'

차이나 뉴스 & 리포트

관광지·호텔 등 3일간 영업중지
지하철 18개 노선 92개 역 폐쇄
베이징 시민 90% PCR 검사 받아
"재확산 피해규모 2020년의 10배"

베이징이 혼란에 빠졌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택배나 배달도 모두 불가능한 봉쇄가 시행될 것이라 루머는 베이징 시민들을 공포에 빠트렸고, 다시 한 번 사재기가 성행했다. 노동절 연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는 끝날 기미가 없고, 일부 대중교통 중단에 이어 신규 감염자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 하이뎬구에서 한 의료진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해 어린이의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신화·뉴스시스

발생한 지역은 택시마저 이용할 수 없도록 묶어냈다. 기존 엄격한 입국 제한에 이어 자국민들의 출국까지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베이징에 끔찍함이 같은 상태가 됐다.

15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베이징의 감염자 수는 총 4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하순부터 강도높은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베이징의 일일 신규 감염자 수는 두자릿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 바깥인 이른바 '사회면'에서도 신규 감염자가 계속 나오면서 방역정책은 강도가 더해졌다.

베이징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13일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14~15일 재택에서 쉴 것을 권장했다. 권고 형식이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 소규모 공원을 포함한 모든 관광지와 호텔 등은 해당 기간 동안 영업을 일제히 중단됐다.

베이징 시내에서 폐쇄된 지하철역은 총 18개 노선, 92개 역에 달한다. 특히 신규 감염자가 나온 광산구와 순이구의 경우 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인근 지역은 택시 운행까지 중단됐다.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다시 시작했다. 차오양구와 하이뎬구, 순이구 등 12개 구는 13일부터 15일까지 연속 사흘간 전 주민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12개 구에는 베이징 시민의 90% 이상이 거주한다.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는 팬데믹 초기인 우한 사태 당시보다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 추정도 나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나라 IPEF 가입문제 공식화할 듯

>> 1면 '尹-바이든, 21일'서 계속

이에 따라 교착 상태인 남북, 북미관계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으나, 북한이 자력으로 지역 봉쇄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 방침에 답할지가 변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IPEF 가입 문제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참가국으로는 미국과 우리나라와 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필리핀·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다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 간 무역, 공급망, 탈탄소

와 인프라, 탈세와 부패 방지 등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포용적이고 유연한 경제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일종의 '경제안보 플랫폼'이지만, 사실상 목적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며 무역질서를 재편하려는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IPEF 가입을 결정할 경우, 그동안 IPEF 출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경제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갈등도 불러올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전략 및 상황 관리 방안 ▲경제안보 중심 공급망·신기술 등 양국 협력 방안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양국 간 기여 방안 논의 등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최종 의제를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토지소유자 소재확인 공고(1차)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 2항에 의거 가스배관 시설을 설치하려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관련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41-3
- 소유주: 유준상, 정재룡 /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까지
- 공고인: 협성설비(주)
- 연락처: 조규준 010-9011-9304

2022. 5. 16

테슬라 등 수입차 업계도 가격인상 조짐

>> 1면 '부품대란에 카탈레이션'서 계속

더 2023 K8의 가격(개별소비세 3.5% 기준)은 가장 저렴한 노블레스 라이트부터 가장 비싼 플래티넘 트림까지 3318만~4565만원이다. 지난해 K8 가격이 3279만~4526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비해 오른 가격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도 올해 '2023년형 XM3'를 내놓으면서 가격을 인상했다.

올해 연식변경 모델의 가격은 1866만~2863만원으로 2022년형의 1787만~2641만원보다 가격대가 높아졌다.

수입차 업계도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판매가를 올리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3월에만 두 번 인상했다. 테슬라는 모델3 가격을 990만원 이상 인상했으며 모델Y는 1500만원 이상 올렸다. /양성운 기자 ysw@

롯데, 美 바이오 공장 인수... 글로벌 톱 CDMO '첫단추'

(위탁개발생산)

‘롯데바이오로직스’ 신설법인 설립 시리큐스 BMS 공장 2000억에 인수 신사업 진출 선언 후 첫 인수합병 10년간 바이오에 2조5000억 투자

롯데가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세운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의 밑그림을 빠른 속도로 그리고 있다.

15일 롯데는 6월 전까지 롯데지주 산하에 자회사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신설하고 2030년 글로벌 톱 10 바이오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년 간 바이오 의약품 사업에 약 2조 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첫 걸음으로 해외 생산공장을 인수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롯데는 이사회를 열고 미국 뉴욕주 시리큐스시에 위치한 브리스틀 마이어스 스콧(Bristol-Myers Squibb)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 인수를 의결했다.

인수규모는 1억 6000만 달러(약 2000억원)이며 최소 2억 2000만 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롯데는 공장 인수 후에도 BMC와 협력관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롯데와 BMS 양사는 각종 규제 승인 완료 등을 전제로 2022년 하반기 중 거래가 완료 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이번 공장 인수는 신동빈 롯데그룹



뉴욕주 시리큐스시에 위치한 BMS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시설 내부 풍경. 공정 작업자가 탱크에서 용액 수치를 확인 중이다. /BMS

회장이 주도했다. 지난 4월 미국 출장 중 시리큐스 공장을 직접 살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이사회에서 “BMS 시리큐스 공장의 우수한 시설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롯데와 시너지를 만들어 바이오 CDMO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전에서 활약한 이원직 롯데지주 신성장2팀장은 “시리큐스 공장은 임상 및 상업 생산 경험이 풍부해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공장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바이오 산업에서 롯데가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매물로 판단했다”며 “사업 초기 항체 의약품 CDMO 집중을 통해 바이오 사업자로서 역량을 입증하며 사업 규모와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리큐스 공장은 생화학자, 생물학자, 엔지니어 등 42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시리큐스 공장은 현재 동·식물 세포를 이용한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임상시험용 의약품 소량 생산과 바이오 의약품 대량 생산 방안을 연구 중이다.

PD-1 억제제 오펜보(Opdivo)와 여보이(Yervoy), 면역억제제 뉴로로직스(Neurologics),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앰플리티(Amplity) 등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리서치 업체 EP(Evaluate Pharma)은 2026년 세계 처방약 시장에서 오펜보는 예상 매출 133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는 공장 인수 후에도 신규 제품 수주 및 공정 개발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 투자를 이어간다. 항체 의약품 CDMO 사업 확장은 물론 완제의약품(DP : Drug Product)과 세포·유전자 치료제(Cell·Gene Therapy) 생산이 가능한 시설로 전환한다. 시리큐스 공장 운영과 바이오 제약사가 밀집된 북미 지역 판매 영업을 위한 미국 법인 설립과 10만 리터 이상 규모의 생산 공장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이후 롯데헬스케어 대표(롯데지주 부사장)은 BMS 인수와 관련해 “최

첨단 시설인 시리큐스 공장을 글로벌 제약 사업에 추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북미 지역에서 바이오 의약품 CDMO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롯데지주는 신성장동력이 될 미래사업으로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5일 ‘롯데바이오로직스’ 상표를 등록하고 업종을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로 한다고 밝혔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6월 미국 샌디에이고 바이오 업계 행사 ‘바이오 USA’에 참석할 예정이다. 롯데의 바이오·헬스케어 사업 진출은 지난해 8월 가능성이 떠올랐다. 롯데지주는 8월 ESG 경영혁신실 산하에 바이오팀(신성장2팀)과 헬스케어(신성장3팀)를 신설했다. 헬스케어팀은 헬스케어 전문회사 ‘롯데헬스케어’를 설립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마이크론, 세계 첫 232단 낸드 연내 양산

178단 낸드 이어 차세대 메모리도 ‘세계 최초’ 타이틀 빼앗길 가능성

미국과 중국 메모리 반도체 굴기 심상치 않다. 전폭적인 투자를 발판으로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15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최근 인베스터 데이 2022를 열고 차세대 메모리 양산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낸드플래시는 올해 말 232단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176단 낸드 양산에 성공한데 이어 차세대 낸드도 먼저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10나노급 5세대(1b) D램 양산 자신감도 내비쳤다. 올해 안에 1b 양산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며, EUV가 아닌 ArF 공정으로 양산하겠다고 확정했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12.8나노로 1b D램 개발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차세대 메모리 양산 계획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순조롭게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아직은 선단 공정을 라인에 적용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체 ‘초격차’가 추격당하고 있다는 우려도 이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10나노 4세대(1a) D램과 178단 낸드에 이어 차세대 메모리에서도 ‘세계 최초’를 뺏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반도체 업계에서는 마이크론 기술력

이 아직 국내 업체를 위협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낸드는 일찌감치 더블스택을 적용했고, D램도 여전히 EUV를 사용하지 못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이유다. 선단 공정 미세화 외에 여러 기술력에서도 차이가 커서 성능면에서도 여전히 국내 메모리와 비교해 떨어진다 지적이다.

다만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데에는 부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미세 공정 난이도가 크게 올라간 탓.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전후공정 뿐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메모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만이 아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분위기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YMTC가 하반기부터 낸드 양산을 확대, 낸드 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YMTC낸드는 아직 128단에 불과하고 성능도 떨어지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 중국 현지를 중심으로 저가 제품에서 수요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 반도체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양산뿐 아니라 장비 등 반도체 기반 산업에도 투자를 강화하면서 다시 반도체 굴기에 나서는 모습도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 메모리 기술력이 여전히 한참 앞서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미세 공정에서는 격차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며 “중국도 추격에 나서면서 위기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LX하우시스

www.lxhausys.co.kr

“가격 적당한데?”
“적당해서 선택한 키친은 정말 좋은 키친일까요?”



적당이 아닌
나의 안목에 맞춘 키친



달으면 깔끔한 스마트 허든키친



함께 세브가되는 세프 아일랜드



더 넉넉한 대형 멘트리장



열지않고 보는 모션뷰 허부장

공간을 넘어 공감을 설계하다

LX Z:IN 인테리어



① GS그룹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야경 ② GS건설 '자이' 브랜드
 ③ GS칼텍스 구미 탄소포집 공장 ④ GS EPS 당진 발전소
 ⑤ 친환경 드론배송 시연 모습 ⑥ GS칼텍스 여수공장
 ⑦ 통합 GS리테일 ⑧ GS25 매장

역변의 20년,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9> GS그룹

에너지·리테일·무역·건설 승승장구 친환경 혁신으로 지속가능 기업 추구



재계에서 GS그룹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아름다운 이별'과 '분쟁 없는 가족경영'일 것이다. 1947년 구인화·허만정 두 사람이 만든 LG그룹의 모체인 '락희화학공업사'의 이 창립을 시작으로, 57년 동안 이어진 구씨 일가와 허씨 일가의 '동행의 역사'는 국내 재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동업의 정석'과 '계열분리의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평가받는다.

3대까지 이어졌던 두 집안 동업은 몇 차례 계열분리로 마무리됐고, GS그룹은 2005년 LG에서 법적으로 계열 분리에 성공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룹 경영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혈육 간, 동업자 간 얼굴을 붉히던 일이 비밀비재했던 한국 재계 역사에 울림을 주는 일이었다.

GS그룹은 출범 이후 꾸준히 성장을 거듭했다. 공정위 자료 기준 출범 당시 GS그룹의 자산은 18조7190억원이었지만 출범 10년 후에는 지난해 58조2000억원으로 3배 성장했고, 2020년 말 기준 자산은 67조6770억원을 달성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 와중에도 GS칼텍스와 GS에너지 등 발전 자회사의호실적에 힘입어 실적을 개선을 이뤄냈다. GS그룹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24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7064억 원보다 75.9% 급증했다.

GS그룹은 단순한 실적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 안정적인 형제승계와 두각 드러내는 4세 경영진

GS그룹을 설명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허창수 명예회장을 꼽을 수 있다. 고(故) 허준구 명예회장의 장남인 허 명예회장은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지도자로 불리며 GS그룹 출범과 함께 허씨 가문의 추대를 받아 그룹의 대표로 선임된 인물이다. 게다가 허 명예회장은 2011년 2월부터 지금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아 최장수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며 재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공식출범 이후 성장세 지속 허창수 명예회장, 계열사 규모 3배 키워 허태수 회장, '디지털 전환' 방점 경영

허창수 회장은 2005년 3월,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해 재임기간 동안 자산 및 계열사 규모를 3배 이상 성장시키는 업적을 달성하고, 그룹이 100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중심의 자율경영',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GS그룹이 공격적 인수합병(M&A) 능력과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확충을 탄탄히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

그가 만든 가장 굵직한 성과는 그룹의 성장을 책임질 사업으로 '에너지·유통서비스·건설'의 3대 핵심 사업군을 구축해 집중 육성한 것이다. 2011년 GS그룹의 에너지 중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심 사업형 지주회사인 GS에너지를 2012년 출범시켰고, 에너지사업 부문 책임경영체제 강화,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신규 성장사업을 길러 냈다.

그런 그는 GS그룹은 2019년 12월 임기를 2년 남기고 용퇴를 선언하며 당시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을 새 회장으로 추대해 리더십 변화를 추구했다. 지금의 수장인 허태수 회장은 GS 창업주인 고 허만정 선생의 3남 고 허준구 명예회장의 5남이자 허창수 명예회장의 동생으로 3세 경영의 마지막 주자로 여겨진다. 허 명예회장은 퇴임 당시 "GS의 안정적 기반을 다진 것으로 나의 소임은 다했다"며 "지금은 글로벌 감각과 디지털 혁신 리더십을 갖춘 새로운 리더와 함께 빠르게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태수 회장은 2007년부터 GS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아 GS홈쇼핑의 해외 진출과 모바일 쇼핑 사업 확장 등을 잇달아 성공시킨 이력이 있다. 대표이사 취임 직전 1조8946억원이었던 GS홈쇼핑의 연간 취급액은 허태수 대표이사 체제에서 2019년 4조2822억원으로 급증했다. GS그룹은 정유, 에너지, 건설 등 전통 산업 의존도가 높지만, 이런 이력을 가진 허 회장 취임 이후 '디지털 전환'에 방점을 두고 움직이는 중이다.

'허태수호'가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GS그룹의 4세 경영 구도도 눈여겨 볼만하다. '허준구계'인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허서홍 GS 부사장,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 등과 고 허준구 GS건설 명예회장 자녀들인 '허준구계' 허윤홍 GS건설 부사장 등이 4세대 대표 주자로 꼽힌다. 허씨 일가는 칼텍스, 건설, 리테일 등 주력 계열사를 유력 가족 구성원이 직접 경영하고, 나머지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 사업생태계 확장에 박차 가하는 GS

GS그룹은 올해의 경영 방침으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사업 생태계(Biz. Ecosystem,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확장'을 제시한 바 있다.

허 회장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사업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미래성장으로 나아가려면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사업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S그룹의 사업 생태계는 LG화학, 포스코 등과 함께 산업용 바이오 재료 생산 협력 관계를 맺었고, 국내외 바이오전문 벤처

캐피탈과 스타트업에 잇따라 투자한 데 이어 최근에는 레드바이오 분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다. ▲탄소중립 테크기업과 협력하는 분야 ▲전기차 충전 및 배터리를 리사이클 분야의 유망한 테크 기업과 함께 하는 분야 등 다양한 사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도 내세우고 있다.

◆ GS벤처스로 미래성장 동력 투자·발굴하고 강화

GS그룹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활동을 통해 투자 생태계 확장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주회사 최초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인 GS벤처스(GS Ventures)를 설립했다. GS벤처스는 GS의 지주회사인 GS가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지분 100%를 소유하는 자회사다.

지주사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설립 바이오·자원 분야 등 스타트업 발굴 전기차 등 사업 생태계 확장 본격화

GS벤처스의 투자 대상은 국내를 중심으로, 바이오·기후변화대응·자원순환·유통·신에너지 등 GS가 신성장 분야로 꼽고 있는 영역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형식이다. 특히, GS벤처스는 초기 설립 및 자금 유치 단계의 스타트업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후 단계에 대한 투자는 GS와 각 계열사와 협력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GS벤처스 초대 대표는 지난 연말 GS 임원인사에서 GS CVC팀장으로 외부 영입되었던 허준영 부사장이다. 허 대표는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부문과 UBS뉴욕본사 등에서 국제적인 기업인수합병을 이끌어온 투자전문가다.

GS그룹은 이미 2020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CVC해외법인인 GS퓨처스를 출범시켜 해외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GS벤처스의 설립으로 GS그룹은 국내외에 각각 CVC 자회사를 두고 국내외의 스타트업에 전문적인 투자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

사람의 나이로 치자면 2005년 3월 공식 출범한 GS그룹은 이제 청년기로 접어들 준비를 하는 활동력 왕성한 기업이다. 재계에 분이 되는 'GS스타일'을 구축하며 성장해 나간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인물보다 당심에 달린 선거당락?... 무투표 당선자 폭증

제8회 지선 후보자 등록 마감

무투표 당선, 4년 전보다 5배 증가
대구·광주 등 지역 쏠림현상 여전
평균 경쟁률 1.8:1... 역대 최저수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가운데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된 인원이 4년 전보다 5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13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집계해 공개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전국 313개 지역구에서 494명이다. 전체 선출 인원의 12%에 달하는 수치다.

15일 기준 중앙선관위 무투표선거구 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당선자 숫자는 ▲구·시·군 기초자치단체장(6명) ▲시·도의회 광역의원(106명) ▲구·시·군의회 기초의원(282명) ▲구·시·군의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전북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아름다운 선거 어울림 마당을 열고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시스

기초 비례대표의원(99명) ▲교육의원 선거(1명) 등이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86명)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유권자의 지지와 상관없이 당선증을 받게 된다.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190조에 따라 투표 없이 선거일에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투표 없이 당선되는 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공보물도 유권자에게 발송할 수 없다. 선거벽보도 붙지 않는다.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은 선거구별로 특정 정당에 쏠림 현상이 강하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만 봐도

대구 중구·달서구, 경북 예천군, 광주 광산구, 전남 보성·해남군 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각각 강한 영·호남에 몰려 있다.

광역의원 선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는 지역구에서 29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가운데 20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광주 역시 지역구에서 20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가운데 무투표 당선자가 11명이며,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전북도 지역구에서 36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가운데 22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들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더욱더 문제다. 선거구별로 2명씩 선출하는 곳 가운데 국민의힘·민주당이 각각 1명씩만 공천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도 여럿 있다. 해당 선거구에 다른 후보들이 출마

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부산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14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28명 나온 게 대표적인 사례다. 2인 선거구에 국민의힘·민주당이 각각 1명씩만 공천했고, 다른 정당이 나 무소속 후보는 출마하지 않았다. 인천도 기초의원 선거구 10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20명 나왔다. 이 역시 2인 선거구에 국민의힘·민주당이 각 1명씩 후보를 공천했고, 다른 정당이 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도 가장 낮았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포함해 모두 7616명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집계해 발표한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이었다. 선거별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교육감 선거로 3.6대 1이었다. 뒤이어 광역자치단체장(3.2대 1), 기초자치단체장(2.6대 1), 시·도의회 광역의원(2.5대 1) 순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여야 2차 추경 심사 돌입 신속 통과 vs 현미경 검증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내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 심사
손실보상·초과세수 문제 등 이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료(성과계획서)를 옮기고 있다. /뉴스시스

여야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초과세수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두터운 보상'과 '재정 안정'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를 거쳐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표결을 거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8석으로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번 추경안에 빠져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정책조

정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을 살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이 빠져있다"며 "지원 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다. 반쪽짜리인 셈이다. 이미 폐업했거나 코로나 19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기준도 모호해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초과 세수 53조원이 발생한 것도 민주당이 반발하는 지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도 61조 4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예측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

尹 대통령, UAE에 조문사절단 파견

윤석열 대통령이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특사 단장으로 한 조문사절단을 파견한다.

고(故) 칼리파 대통령은 UAE 연방을 창설한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아들로, 2004년 아부다비 통치자 및 UAE 대통령에 즉위한 이후 재임하던 도중

지난 13일 서거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조문사절단은 장제원 대통령 특사(단장)와 주UAE대사, 외교부 간부들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조문사절단은 16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신임 대통령 등 유족을 만나 윤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애도와 조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 세상을 바꾸는 금융

어디든 떠날 그날을 위해, 마일리지 두둑하게 쌓아두세요!

KB국민 스카이패스 티타늄 카드
국내외 1천원당 1마일 기본적립
해외/면세점 1천원당 1마일 추가적립(총 2마일)

• 연회비: 국내 해외겸용 4만 5천원 • 카드 신청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보유 등)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연신금융업의 심의필 제2022-C2b-01293호(2022.02.25~2023.02.24)

• 연체이자율: 회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 최고 연 20%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적용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B국민카드

주담대 이자 깎아주는 ‘안심전환대출’, 영끌족엔 희망고문?

평균 연 3~4%대 금리 이용 가능
4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대상
수도권 아파트 차주 해당 어려워

고정금리 전환과 대환대출이 추진되지만 저가 주택 소유자와 소상공인만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하는 사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변동형 주담대를 고정형 주담대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대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으로 우대형과 일반형 2가지를 제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집값이 각각 9억원, 4억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형은 소득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우대형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각각 5억원, 2억5000만원이다.



서울 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상담하고 있는 모습. /뉴스시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보증자리론 대비 저렴하다. 5월 기준 보증자리론 금리가 연 4.1~4.4%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안심전환대출 일반형은 이보다 0.1%포인트, 우대형은 0.3%포인트 낮게 공급할 계획으로, 평균 연 3~4%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평균 7%에 육박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4%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

회를 4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 저가 주택 소유자에게만 우선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총 공급액이 20조원으로 제한되어 집값이 낮은 순부터 전환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서울 강북권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억원, 강남권은 15억원을 돌파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비싼 서울 소재 주택 보

유자는 해당 지원을 받기 어렵다. 9억 이하 주택 소유자는 내년을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저가 주택 소유자에게 우선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그 신청자를 소화하고도 재원이 남는다면 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소유자에게도 안심전환대출의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2015년에 시행된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에도 한도가 20조원으로 설정됐지만 출시 며칠만에 모두 소진된 바 있다. 특히 금리인상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 소유자는 안심전환대출 가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과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고금리인 2금융권 대출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 중소기업 대출로 갈아타는 7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대출’을 도입할 방침이다.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7% 이하로 낮춰줄 방침이다.

현재 제2금융권인 카드회사와 저축은행 등 평균 대출금리가 연 13~14% 수준이지만 은행 중소기업 대출로 갈아타면 연 6~7%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대환대출 가입조건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대출금을 90일 이상 갚지 못했거나 영업 회복세가 상환 부담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해 향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차주다. 부동산·도박·향락 등의 업종과 체납이 빈번한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수도권 아파트 차주는 안심전환대출에 가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외국인 고객, 일요일 영업점 방문하세요”

우리은행, 영업점 운영·예약 진행

우리은행은 외국인 고객의 편리한 은행 업무 지원을 위해 ‘외국인 일요일영업점 방문 예약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평일 은행방문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안산, 의정부, 광희동, 김해, 발안 등 총 5곳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외국인 일요일영업

점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일요일영업점 방문 예약 서비스’는 ▲방문 영업점 ▲방문 날짜 ▲금융업무를 예약하고, 은행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우리은행 모바일웹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추후 외국인 전용 앱인 ‘우리글로벌뱅크’에도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삼성생명, 1분기 순이익 2697억... ‘급감’

전년 동기 대비 8184억 줄어
“지난해 특별배당 기저효과”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기업설명회(IR)를 통해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269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81억원) 대비 8184억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삼성전자 특별배당에 의한 기저효과 및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변액보증준비금 손실 확대에 따른 결과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작년 1분기 순이익(1조881억원)에서 삼성전자 특별배당이 6470억원을 차지했다”면서 “기저효과 등을 제외하면 작년보다 나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장래 이익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인 신계약 가치는 1분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470억원) 대비 15.4% 증가했다.

신계약 가치는 보험계약 체결 후 전체 보험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을 모두 계산해 장래이익으로 환산한 가치를 의미한다. 금리 상승과 더불어 건강상품 비중을 확대하고, 영업효율이 개선된 영향이다. 자산운용이익률은 신규투자이원 개선 및 매각의 적기 실현 등에 힘입어 3.6%를 기록했다.

3월 말 기준 총자산은 328조1000억원, 자본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급여력(RBC)비율은 246%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청정의고장
청정고추의 고장
청정사과의 고장

대한민국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재배 생산되는 영양청결고추

남영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명술

우리은행-캠코 유동성 부족 기업 정상화 ‘맞손’

자산 매입 후 임대 활성화 업무협약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3일 협약식에는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활성화와 금융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자산 매입 후 임대’는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매입해 기업에 재임대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매각대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지원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금융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을 적극 제공해 보다 빠른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



이원덕 우리은행장(오른쪽)과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고 있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고용 유지·확대 및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양사의 시너지를 창출해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DGB대구銀, ‘뱅크샐러드’ 대출상품 입점

DGB대구은행은 데이터 기반 개인 자산관리서비스 업체인 뱅크샐러드의 대출금리비교서비스에서 IM직장인 간편신용대출과 DGB쓰담쓰담간편대출 이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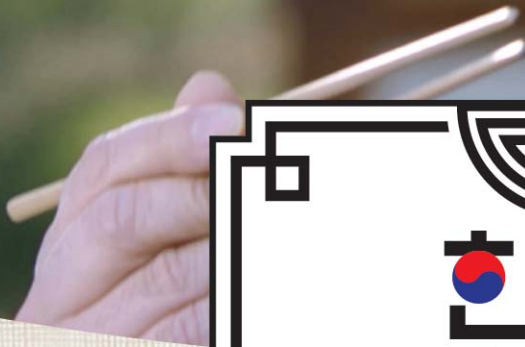
IM직장인 간편신용대출은 최대 1억 8000만원까지 필요한 대출은 은행 방문 없이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비대면 서류제출을 활용하여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로 6개

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며, DGB쓰담쓰담 간편대출은 최대 3백만원 한도로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용자도 비상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출시 이후 꾸준히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DGB대구은행의 대표 신용대출상품이다.

/구남영 기자



고치!
김치는
이래야지!



세계를 사로잡다
농협의 이름으로



* 농협몰(www.nonghyupmall.com)과
하나로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100% 우리 농산물로 믿을 수 있게
- HACCP 인증으로 청결하게
- 각 지역의 특색을 담아 정성스럽게

세계적 수요감소·인플레이에 인력난까지... 'K-반도체' 난항

삼성·중양메모리, 생산 확대에 공급 늘어 웨이퍼가격 하락 전망
D램 가격 하락 등 시장침체 우려

국내 반도체 부족에 장비공급 차질
인력난에 근거없는 루머 시달려
삼성 '대규모 M&A' 골든타임 놓쳐

국내 반도체 업계에 또 위기감이 감
돌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트렌드포스는 5월
부터 낸드플래시 웨이퍼 가격이 하락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에는 공급
이 수요를 초월하며 3분기 가격 하락폭
이 5~10%에 달한다는 전망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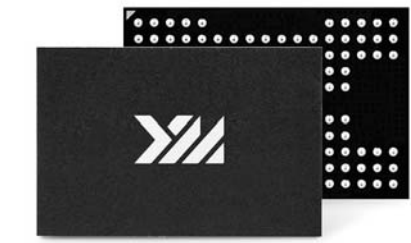
낸드플래시 가격 역시 키옥시아 공정
오염 등 공급 축소에도 불구하고 상승
기대와는 달리 2분기 보합세를 유지한
상황, 그나마 서버용 수요가 강해서 3분
기에는 0~5%의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
로 내다봤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소비재 판매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올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 전망〉

| 1분기 | 2분기 | 3분기 |
|---------|---------|--------|
| 5~10% ↓ | 5~10% ↑ | 0~5% ↑ |

/자료=트렌드포스



YMTC 낸드 플래시 메모리 /YMTC

중국의 봉쇄 정책에 더해, 코로나19 완
화에 따른 IT 기기 수요 감소와 인플레
이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트렌드포스는 공급 과잉 우려도 제기
했다. 삼성전자가 꾸준히 생산량을 늘
리는 가운데, 중국 양쯔메모리(YMT
C)까지 생산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
작했다는 것. YMTC는 128단 낸드 양
산을 안정화했고, 스마트폰에도 공급을
시작한 상태다.

D램도 가격이 힘을 못내고 있다. 낸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 소속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인근에서 임금체계 개편 및 휴식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드와 같은 이유로 수요가 줄면서 가격
이 소폭 하락하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
에 따른 시장 침체도 우려되면서 하반
기 '슈퍼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수 있
다는 기대감도 사그라들고 있다.

파운드리 시장 경쟁은 더 과열됐다.
인텔이 막대한 투자를 빠르게 집행하
는 가운데, TSMC는 1.4나노 공정 계획
을 새로 발표하며 1위 굳히기에 나섰다.
3나노에서 기술 역전을 베풀는 삼성전자
와 '옵스트롱' 시대를 먼저 준비하는 인

텔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
이된다. 반도체 생산 가격을 8% 올리
기 위해서 또다시 역대급 투자를 발표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내적인 문제도 있다. 반도체 부족으
로 새로운 장비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동시에, 인력난 속
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공격도 받고 있
다. 임금 인상 뿐 아니라 근거없는 루머
까지 양산되면서 내부 분위기를 추스리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국내 반도체 업계는 불안정
성 속에서도 꾸준히 '초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D램과
낸드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
며,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수율이 빠르
게 안정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K
하이닉스도 양산 효율을 높이면서 솔리
다임과 시너지 효과를 본격화하는 모습
이다.

새로운 도전은 속제로 남았다. AP 성
능 논란과 비메모리 공급난 장기화 등
불안정 속에서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
로운 성장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
이 이어지고 있다. SK는 실트론과 솔리
다임 등 인수와 AI반도체 설계업체인
사피온 설립 등으로 반도체 관련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전자는 100조원 이상 실탄을 확보하고
도 이재용 부회장 부재 탓에 '대규모 M
&A'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다. 이 부회
장 사면 요구가 각계에서 이어졌지만,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
동안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차, '온돌' 같은 편안함... 특허출원 콘셉트 공개

자체개발 '모빌리티 온돌 콘셉트'
완전 자율주행 전제... 조작부 없어
탑승자의 '온전한 휴식' 위한 설계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완전 자율주
행차 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술
을 공개했다. 이번엔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 방식인 '온돌'을 모티브로 만든
시트다.

현대차그룹은 자체 개발해 특허 출
원한 '모빌리티 온돌 콘셉트'를 15일
'HMG 테크 사이트'에 공개했다. 현대
차그룹은 이 사이트를 통해 미래 모빌
리티 구현을 위한 특허 출원 소식을 전
하고 있다.

이번엔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동차의
이동과 거주 개념이 복합적으로 결
합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는
시트 부분이다. 현대차그룹은 특수한
시트 구조와 온돌 특유의 열전도에서
모티브를 얻은 난방 체계로 모빌리티
의 색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특수한 시트 구조와
온돌 특유의 열전도에서 모티브를 얻



현대자동차가 자체개발한 '모빌리티 온돌 콘셉트' 이미지.



풀 플랫폼 시트 모드별 자세 (왼쪽부터) 기본 자세, 릴렉스 자세, 풀 플랫폼 자세.

은 난방 체계로 모빌리티의 색다른 미
래를 상상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온돌은 온돌 난방 방식
에서 영감을 받아 실내 공간을 구성한 콘
셉트다. 탑승자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

성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자율주행 시스템을 전제로 하
고 있는 만큼 모빌리티 온돌에는 주행
을 위한 별도의 조작부가 존재하지 않
는다. 탑승자가 이동하는 동안 온전히

휴식에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승차 공
간을 설계했다. 앞뒤 좌석을 서로 마주
보게 대칭으로 구성해 탑승자들이 서
로 소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어 트림 내부에 접이식 테
이블이 있어 물건을 올려놓거나 식사
를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어 트림 포켓도 글로브박스 정
도의 넓은 수납 공간으로 바꿨다.

침대 모드 사용 시에는 시트백이 뒤
로 이동해 누울 자리를 최대한 확보하
며 레그레스트가 시트 쿠션과 평행을 이루
며 평평한 구조를 만든다. 탑승자는 플
로어와 고정 가능한 체결장치가 있는
안전 담요를 덮고 취침하면 된다.

이처럼 휴식이 가능한 이유는 '풀 플
랫폼 시트'를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현
대차그룹의 설명이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개발 중인 이 시트는 경첩 및 지지
구조를 달리해 일반적 좌좌 자세는 물론
탑승자 피로도를 줄여주는 자세도 안정
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 듀얼업 모니터 /LG전자

LG전자 자유자재 회전하는 '듀얼업 모니터' 출시

LG전자가 마음대로 돌아가는 모니
터를 내놓는다.

LG전자는 LG 듀얼업 모니터를 국
내에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듀얼업 모니터는 28형 나노 IPS 디스
플레이에 16 대 18 화면비를 적용한 제
품이다. 21.5형 모니터 2대를 위아래로
붙인 형태로, 세로로 길게 만들어졌다.

특히 듀얼업모니터는 LG 360 스탠
드로 화면을 가로 90° 방향으로 회전
할 수 있는 피벗과 좌우로 335° 까지
돌릴 수 있는 스위블을 지원한다. 최대
165mm 범위 내에서 높이 조절도 가능
해 사용자의 자세에 맞춰 화면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 가능하다.

LG전자는 한 눈에 화면 전체를 보
기 위해 모니터를 위아래로 놓고 사용
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사용자 경험에
착안했다. 화면을 위아래로 분할해 영
상편집 작업을 하는 유튜브나 많은 코
드를 스크롤 없이 한 번에 확인해야 하
는 프로그래머, 여러 작업물을 동시에
 띄워놓고 검토해야 하는 디자이너 등
멀티태스킹 작업이 많은 고객들의 니
즈를 반영한 것이다.

PC 2대를 동시에 연결하는 것도 가
능하다. PBP 기능으로 PC 2대를 한 화
면에서 볼 수 있다. 노트북과 데스크톱
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윈도우와 맥북
을 동시에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 핵심소재 개발나서

대만 업체 '프롤로지움'과 협력

포스코홀딩스가 '꿈의 배터리' 개발
에 속도를 높인다.

15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회사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핵심소재를 개발하
기 위해 대만의 전고체 배터리 전문기
업 '프롤로지움'과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2
일 프롤로지움에 지분 투자 및 핵심소
재인 전고체 배터리 전용 양극재와 실

리콘 음극재, 고체전해질 공동개발, 글
로벌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
했다.

2006년에 설립된 프롤로지움은
2012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으며,
이를 스마트워치 등 소형 IT기기 업
체에 판매하고 있다. 또 글로벌 투자사
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독일의 다임러
그룹 등 주요 완성차업체와 함께 전기
차용 전고체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ISE 2022서 기술력 인정받아

'더 월' 등 5개제품, 최고의 신기술

삼성전자가 상업용 디스플레이 기술
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1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
로나에서 열린 'ISE 2022'에서 다수 어
워드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삼성전자는 ISE 공식 미디어
파트너인 '커머셜 인티그레이티'와 'C
E Pro'가 '더 월' 등 5개 제품을 '최고
의 신기술'로 선정했다.

특히 더 월은 디지털 사이니지 하드
웨어와 바이오월 하드웨어 등 2개 부
문에서 어워드를 받았다.

사이니지 전문 운영 솔루션인 '매
직인포'와 '아웃도어 사이니지(O
HA 시리즈)'도 각각 디지털 사이니
지 소프트웨어, 아웃도어 디스플레
이 부문에서, '삼성 플립 프로'는 전
자철판 부문에서 최고의 신기술로
선정됐다.

/김재용 기자

게임업계에 부는 ‘포괄임금제 폐지’ 바람… 처우개선 기대

슈퍼캐트·NHN 등 폐지 잇따라
구성원 복지향상, 처우 개선
새 정부 이후 폐지 분위기 고조



최근 국내 게임업계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며, 업계 구성원들의 복지와 처우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정식 서비스 직전 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에 몰두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결정은 어렵게 여겨져 왔다.

하지만 2022년 초부터 과감히 포괄임

금제를 폐지하고, 구성원 복지 향상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중견 게임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게임사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바람의 나라:연’의 IP를 보유하고 있는 슈퍼캐트가 올해 1월 초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업계 전반이 이를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슈퍼캐트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합리적인 근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구성원들에게 시간 외 근로 수당을 1분 단위로 지급한다.

특히 상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

석 관리 등의 근태 모니터링은 도입하지 않았다.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선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전체적인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만 힘쓰기로 결정한 것.

이 밖에도 최근 자율 출퇴근제와 연 2회 계절 휴가, 연 300만 원의 복지카드를 제공하는 등 구성원들의 복지를 강화한다.

또 NHN도 2022년부터 포괄임금제 폐지를 발표했다.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 개인의 근무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NHN 고유의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 5월부터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재택근무형태 ‘수요오피스’ 공식 운영을 발표하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집중한다.

이와 함께 데브시스터즈가 오는 7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조직별로 선택적 재택근무를 추진하는 등 기업 및 업무 문화 강화에 나선다.

데브시스터즈를 비롯해 자회사의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법정 표준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연봉 외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성장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데브시스터즈 및 해외법인 전 직원 대상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며 그외 비상장사인 개발 자회사에게도 법인별 스톡옵션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와 시간차 제도 등 업무 집중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존 정책도 함께 운용하고 있다.

데브시스터즈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처우 향상 및 근무 환경 발전을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 및 조직별 선택적 재택근무, 전 직원 스톡옵션 부여, 복지 제도 확대 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팀과 개인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고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업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사들의 공통된 주요안건인 포괄임금제 폐지건에 대해 새정부가 들어선 다음 더욱 적극적인 분위기”라며 “하지만 게임업계 특성이라는 게 있어서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 잡히기까지는 오랜 노력과 적극적인 사측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직원과 사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5G 땡큐” 이통3사 1분기 깜짝실적… SKT·KT ‘호조’, LGU+ ‘주춤’

5G 스마트폰 흥행으로 가입자 증가
영업익 1조3000억… 20.7% 늘어
KT, 6000억… 최대 분기실적 기록

이동통신 3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1조3000억원대를 기록하면서 1조원대를 회복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최근 내놓은 ‘갤럭시 S22’ 등 5G(5세대) 스마트폰의 흥행으로 수익성이 높은 5G 가입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5G 가입자 증가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G 중간요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밝힌 만큼 5G 중간요금제 도입이 향후 실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는 1분기 영업이익을 4324억원, 6266억원, 2612억원을 기록, 3사의 영업이익 총합은 1조3202억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20.7%가 증가했다.

통신 3사 중에서는 KT의 ‘역대급 실적 증가’가 가장 눈에 띈다. 12년 만에 영업이익이 6000억원을 넘는 최대 분기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제품 매장 모바일 코너.

/뉴스시스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3사 합산 영업이익 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KT는 매출 성장은 물론 자산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 약 746억원이 반영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

비 41.1%가 증가했다. SKT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5%가 증가한 우수한 성적표를 내놨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부진한 성적표를 내놨다. 이는 신규 플래그십

단말 출시 지연에 따른 단말수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전 사업 부문이 고무 성장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KT 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 절반

KT는 전 사업 부문에서 호실적을 기록했으며, 디지코(DIGICO) 전략이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전체 가입자 중 5G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신 3사 중에 가장 높은 데 5G 가입자 비중은 50%에 달한다. 이에 이어 SKT가 47.5%, LG유플러스가 44%를 차지했다.

KT만 유일하게 1분기 가입자당평균 매출액(ARPU)이 상승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KT의 ARPU는 3만 2308원으로 전분기 대비 1.5% 증가했다. 이에 반해 SKT는 3만 401원을 기록해 전 분기와 비교해 1.1% 줄었다. LG유플러스는 2만 9634원으로 같은 기간 2.3%가 감소했다.

SKT는 5G 가입자 순증폭이 통신 3사 중 가장 컸다. SKT의 1분기 가입자 수는 약 1088만명으로 전 분기보다 100만 여명이 늘었다. 이에 이어 KT는

695만명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57만명이 늘었으며, LG유플러스는 362만명으로 41만명이 증가했다.

◆무선 사업 전체 실적 견인

통신 3사 모두 LTE와 비교해 ARPU가 높은 5G 가입자가 늘어난 덕에 본업인 무선 사업이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했다. SKT는 무선 매출이 2조 587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2%가 늘어났다. KT도 텔코 B2C 매출로 2조 3535억원을 기록해 1.2% 증가했다. LG유플러스도 무선 사업에서는 1조 5182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가 증가했다.

SKT는 데이터센터·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4% 늘었다. KT는 탈(脫)통신 전략에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해 디지코 신사업은 물론 B2B 통신업도 고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기업 인프라 사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3624억원의 매출을 기록,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채윤정 기자 echo@

하늘길 열린 항공업계, 항공기 긴급 투입 등 운항 확대

대한항공, 인천~뉴욕 A380 투입
티웨이, 대형 항공기 출격 앞뒀

국내 항공사들이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해외 여행객 증가 대비에 집중하고 있다. 또 취항 국가를 늘리고 일부 노선에 전세기를 띄우는 등 다양한 마케팅도 적극 진행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초대형 항공기 에어서브 A380을 인천~뉴욕 구간에 긴급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7월 1일부터 인천~뉴욕 노선에 A380 기종 투입을 결정하고 현재 예약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7월부터

이 구간 항공편을 주 1회에서 2회로 증편하는데, 오전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기존 B777-300ER에서 A380으로 변경한다. 오후 출발편은 현재와 같이 B777로 유지된다. 대한항공은 A380 투입으로 증편 없이 좌석 수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도입한 대형항공기 A330의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6월 중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에 A330의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 심의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성수기(6~

9월) 주 3회 운수권을 신규로 배분받았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여간 긴 휴식기를 갖은 항공사들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실적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유럽과 미주 노선 등을 중심으로 주 30회 이상 증편할 계획이다. 운항 횟수는 현재 주 159회에서 주 190회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부산~싱가포르 운항 재개를 기념해 오는 17일까지 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에어부산은 최근 초특가 항공권 이벤트 진행을 알렸다. /양성은 기자 ysw@

LGU+, 디지털 광고·커머스 경쟁력 강화

CEO 직속 사업단으로 조직개편

LG유플러스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광고·커머스 분야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조직 개편에서 신규사업추진부 산하의 광고사업 조직을 CEO 직속의 사업단으로 개편했다.

자사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업무를 일원화하는 역량을 축적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취지다.

황현식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콘텐츠·데이터·광고 분야 사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콘텐츠 분야 전문가 이덕재 CCO(최고콘텐츠책임자, 전무)와 데이터 분야 전문가 황규별 CDO(최고데이터책임자, 전무)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영입했다.

지난 13일에는 광고사업단장으로 15년 이상 데이터 기반 광고·커머스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태훈 상무를 신규 선임하고 이 사업 분야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태훈 상무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을 거쳐 SK텔레콤에서 스마트 푸시형 광고상품 총괄과 신규 커머스 사업 ‘T-Deal(티딜)’을 주도한 T-Deal TF장을 역임했다. /채윤정 기자

2200만개 팔린 '포켓몬빵'... 年 매출 3조 기대

metro 관심종목 SPC삼립

포켓몬빵 효과로 '제2전성기' 월간 기준 판매량 증가 추세

1분기 매출 7248억 역대 최대 증가도 3개월 만에 46% 경증

SPC삼립이 포켓몬빵 효과로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본업인 베이커리 부문이 실적 개선세를 보이면서다. 이어 올해 식음료 매출 3조 클럽의 네번째 기업이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SPC삼립은 전 거래일 대비 600원(0.74%) 상승한 8만14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2월 말 포켓몬빵 신제품을 출시한 이후 SPC삼립의 주가는 6만6900원에서 9만8100원까지 46%가량 치솟았다. 포켓몬빵은 띠띠부질(띠었다 붙였다)하는 스티커) 수집 열풍을 타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후 국내외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8

<SPC삼립 목표주가>

| 증권사 | 목표주가 |
|--------|----------|
| SK증권 | 12만7000원 |
| 신한금융투자 | 9만6000원 |

만1000원선까지 하락했다. 올해 1분기 SPC삼립의 매출액은 7248억원, 영업이익은 13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1%, 30.1% 증가한 수치다.

김정옥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베이커리, 푸드, 브랜드·휴게소, GFS(Global Food Service) 전 사업부가 고루 성장했다"며 "포켓몬빵의 판매 호조로 인해 맥분 판가 상승 및 브랜드, 휴게소 적자폭이 축소되며 전년 대비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베이커리 부문 사업 호조가 SPC삼립의 실적 상승 주 배경으로 꼽힌다. 베이커리 부문은 같은 기간 매출액 1750억원, 영업이익 120억원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7%, 16.66% 늘었다.

포켓몬빵은 지난 2월 말 출시 이후



40일만에 판매량이 1000만개를 돌파했고,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2200만개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포켓몬빵의 월 매출 기여도는 50억~6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박찬솔 SK증권 연구원은 "포켓몬빵의 월간 기준 판매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난 4월 7일 포켓몬빵 4종을 신규 출시했으며, 냉동 보관 제품의 경우 기존 제품 대비 단가가 높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매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SK증권이 12만

7000원, 신한금융투자가 9만6000원으로 SPC삼립의 목표주가를 책정했다. 모두 투자 의견 '매수'를 밝혔다.

최근 리오프닝(경제 재개)에 따라 B2B(기업 간 거래) 채널이 회복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조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SPC삼립은 기존 베이커리 위주의 사업에서 신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안정성을 구가할 수 있다. 추진 중인 신사업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한편, SPC삼립은 베이커리와 푸드, 온라인과 오프라인, B2B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아우르는 '온니푸드플랫폼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4년에는 연결기준 매출 4조원, 영업이익 11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경영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롯데건설-베트남 호찌민시 '투티엠 복합 개발' 1조규모 사업 맞손

롯데건설이 베트남 호찌민시와 '투티엠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5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는 지난 13일 호찌민 인민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판 반 마이 베트남 호찌민시 인민위원장을 만나 '투티엠 에코스마티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베트남 호찌민시 투티엠지구는 호찌민시가 베트남 경제 허브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투티엠 지구 5만㎡ 부지에 지하 5층~지상 60층 규모의 쇼핑몰 등 상업 시설과 함께 오피스, 호텔, 서비스 레지던스와 아파트로 구성된 대형 복합단지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9억달러(약 1조1580억원) 규모다. 올해 상반기 건축계획 승인이 완료 시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삼표시멘트

코스피 이전상장 추진

코스닥 상장사인 삼표시멘트가 코스피 이전상장을 추진한다.

삼표시멘트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 논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7월 4일 개최될 예정이다.

삼표시멘트는 이전상장 추진과 함께 이사회 중심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사회 직속 조직으로 내부거래위원회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삼표그룹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내부거래, 합병상 자기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내부거래 투명성과 적정성을 따지게 된다. 또한,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의 투명성과 독립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도 강남 매물 출회 미미

금리인상·대출규제 등 눈치 매수인-매도인 모두 관망세

윤석열정부 출범에 맞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제도가 시행됐지만 시행 초기여서 부동산 시장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과 서초, 송파 등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 예상이 나왔지만 현장 공인중개업소 취재 결과 매물 출회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 '똥똥한 한채'를 선호하는 다주택자들이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집값 강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팔 개연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15일 서울 강남역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에도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중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기산일(6월1일)을 앞두고 있지만 급매로 나온 매물은 거의 없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거여역 인근 B공인중개



서울 송파구 거여역 6번 출구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모습. /*김대환 기자

업소 대표는 "매물에는 큰 변화가 없다. 평상시 처럼 간간이 나오고 있다"며 "보유세 부담으로 급매는 2건 정도 나왔다"고 했다.

서초구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양도세와 부담부증여(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중 무엇이 나은 지 물어보는 문의가 오고 있다"며 "현재 매물을 팔고 싶어도 안 팔리고 있다. 6월 1일까지 현

실적으로 집 팔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부담부증여를 고려하는 매도자들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10일 1년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주택을 팔아도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받는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주택 거래 시 해당 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는 30%를 중과해 최고 75% 양도세를 부담하게 했다. 지방세(7.5%)를 포함하면 최고 82.5%에 달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도 미미한 매물 증가와 강도 높은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강남과 서초, 송파 등 다주택자의 실제 매매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4월 1205건에서 5월 58건으로 급감했다. 강남구는 4월 77건에서 5월 5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91건에서 5건 송파구는 61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다.

서울 서초구 D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현재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환 기자 kdh@

분양시장 활기... 9곳서 5037가구 청약

분양 캘린더

수원·파주 '푸르지오' 단지 주목 충북 제천 2개단지서 1순위 청약

5월 셋째주에는 아파트 등 분양시장에 다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1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전국 9

곳에서 총 5037가구(오피스텔·임대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난주 공급량인 4135가구보다 21.81%(902가구) 늘어난 수치다.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가 눈에 띈다. 수원시에서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796가구)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770가구) 2개 단지, 파주시에서는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664실)이 청

약 접수를 받는다.

한동안 공급이 없었던 충북 제천시에서는 '장락동 세영리첼 에듀퍼스트'(564가구), '제천하이더스카이'(713가구) 2개 단지가 1순위 청약에 나선다.

모텔하우스는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 'e편한세상 시티 향동 마리나', '힐스테이트 영광' 등 6곳이 오픈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김해 구산 푸르지오 파크테르' 등 6곳에서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0곳에서 진행된다. /*김대환 기자



'e편한세상 시티 향동 마리나' 투시도. /*리얼투데이

코스닥 상장기업인 인카금융서비스는 1분기에 연결기준 매출액 899억원, 영업이익 45억원, 당기순이익 33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7%, 영업이익은 26.4%, 당기순이익은 25.9%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는 지난해 시행된 1200%를 적용에 따라 전반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인카금융서비스는 1200%를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태수 / 온주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 좀 가져보고 싶어.

5/16(월) 오전 11시, 2차 티켓오픈!

MUSICAL

모래시계

2022. 05. 26 ~ 2022. 08. 14

대성 디큐브아트센터

민우혁 온주완 조형균 최재웅 송원근 남우현 박혜나 유리아 나하나 이을 임정모 황만의 정의욱 송문선 김수연 장격수 외

원작 송지나 / SBS 드라마 "모래시계"

프로듀서 장우재 책임프로듀서 정경진 연출 김동연 작/작사 박해림 작곡/음악감독 박정아 안무 신선호 협력음악감독 지혜 편곡 변상후
무대디자인 이영지 조명디자인 백시원 영상디자인 이수경 음향디자인 한문규 소품디자인 김혜지 분장디자인 김성혜 기술감독 김미경 무대감독 이현숙 제작PD 양윤나, 박지은

|주최| SBS, (주)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제작| (주)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SBS |홍보| 오픈리뷰(주) |문의| 02-541-7152

이번엔 ‘탄산가스’ 대란 조짐... 中企 충전업체 한계 임박

中企협동조합 해우소

유가급등에 공장 정비 맞물려 탄산가스 가격 2년새 52% 급등 여름철 드라이아이스 수요 ↑ 식품 등 주요산업 직격탄 우려

탄산가스(CO₂) 수급 불안이 고조되며 ‘대란’ 조짐이다.

당장 탄산가스를 충전해 공급하는 관련 중소기업들이 탄산가스 부족으로 생산차질을 빚는 등 점점 한계가 임박하고 있다. 특히 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탄산가스를 주로 사용하는 반도체, 철강, 조선, 의료, 음료, 폐수처리 등의 주요 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름철 냉동제품 포장에 많이 쓰이는 드라이아이스도 탄산가스로 만든다.

15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고압가스조합)와 관련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평상시 국내의 월 평균 탄산 생산능력은 약 8만3000톤(t)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기업이 대부분인 원료탄산 공급사들의 잇따른 공장 정비가 맞물리

〈탄산가스 주요 활용분야〉

| 분야 | 활용 업종 |
|---------|--------------------------------------|
| 뿌리산업 | 알루미늄·스테인레스 용접 및 절단, 전기용접, 주물 등 |
| 전자 | 반도체, 컴퓨터, 전자기기 제조 및 용접 등 |
| 화학, 의료 | 탄산칼슘·탄산나트륨 제조, 마취제, 피부치료, 살충제 등 |
| 농축산, 식품 | 탄산음료, 맥주, 드라이아이스, 과일·채소 광합성, 가축사육 등 |
| 환경, 전력 | 용수/폐수처리, 화력발전소 탈황, 원자력발전소 냉각 등 |
| 기타 | CO ₂ 소화액, 산화방지제, 철강, 제지 등 |

자료 :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면서 5월엔 약 5만8000t, 6월엔 약 6만7000t 정도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원료탄산 공급 ‘TOP 5’ 가운데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LG화학, SK가 이달 말이나 6월 말까지 공장 정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에스오일, 한화토탈, 에어리퀴드 등은 아직 정비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산가스는 주로 정유·석유화학 제품 제조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온다. 비료·주정 공장에서도 탄산가스가 생긴다. 이를 ‘원료탄산’이라고 부른다. 원료탄산엔 불순물이 많이 포함돼 있다.

원료탄산을 공급받은 탄산메이커 회사들은 이를 정제하고 액화한 탄산을 중소 충전업체에 판매한다. 탄산메이커들은 유통회사 등 대규모 수요처에 탄

산을 직접 판매하거나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해 납품하기도 한다.

중소 충전업체는 액화 상태의 탄산을 초저온용기에 그대로 담아 액화탄산가스로 판매하거나, 기체 상태로 압축가스에 담아 압축탄산가스로 판매한다.

정유사(원료탄산)→탄산메이커(액화탄산)→중소 충전업체(액체·기체)→중소 제조업체·대리점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탄산가스가 물에 녹아 생기는 산은 ‘탄산’이라고 한다.

탄산메이커의 경우 태경케미칼, 선도화학, 장신화학, 동광화학, SK머티리얼즈리뉴텍, 한유케미칼 등이 있다.

이들 외에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충전업체는 고압가스조합 소속 120여 곳을 포함해 국내에 현재 300여 곳이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충전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의 탄산가스 부족 사태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석유화학회사들의 잇따른 플랜트 정비가 주요 요인”이라며 “유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울산, 서산, 여수, 나주 등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이 3~6월에 걸쳐 대거 공장 정비에 나서 부산물로 나오는 탄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냉동·냉장식품용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상대적으로 액화탄산이나 압축탄산용으로 사용할 원료탄산이 부족한 것도 수급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상장사인 태경케미칼은 지난달 29일 SSG닷컴과 2년간 약 89억원 규모의 드라이아이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업계에선 2년전인 2020년 당시 조선업 등에 타격을 줬던 ‘탄산 대란’ 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충전사들의 경우 탄산가스 저장 탱크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탄산가격도 하

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태경케미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탄산가스(제품·상품) 가격은 kg당 186원(2019년)→243원(2020년)→282원(2021년)으로 2년새 52%나 급등했다.

여기에 최근엔 탄산가스를 운반하는 탱크로리차의 연료로 쓰이는 경유가 이 휘발유 가격을 오히려 뛰어넘는 등 폭등하며 운송비 부담까지 늘면서 앞선 데 달친 상황이다. 고압용기, 밸브 등 각종 원부자재 가격도 크게 올랐다.

심승일 고압가스조합연합회장은 “탄산은 국민들 일상 생활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원료로, 부족현상은 공급업체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오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탄산메이커와 충전업체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5~6월에 플랜트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석유화학사들이 정비 일정을 조정하고, 유통배송업체는 드라이아이스 사용보다는 얼음팩으로 대체하는 등 산업보호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온라인 수출 中企 10곳 중 9곳 “물류 애로”

높은 물류 비용, 배송 기간 등 애로 단가 인하, 디지털통관 등 지원 절실

온라인을 통해 수출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물류 분야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곳이 10곳 중 9곳에 달했다.

물류비가 너무 높거나 배송기간이 길고, 수출 통관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 등이 대표적이었다. 온라인 수출 애로 1위 국가는 중국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달 말 온라인 수출 중소벤처기업 71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5일 내놓은 결과에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9.1%가 현재 물류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애로사항(복수응답)은 ▲항공·해상운임 등 높은 물류 비용

(81.7%) ▲배송기간(45%) ▲수출 통관(20.7%)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또 국내물류(First Mile), 국제운송(Middle Mile), 수입국물류(Last Mile) 단계 가운데 제품을 싣고 내리는 국제운송 단계(53.6%)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통관에선 국가별 규제·제도 파악(67.7%), 처리 지연(66.3%) 등에서 어려움이 큰 모습이다.

국가 중에선 중국(31.8%), 미국(30.5%), 동남아(26.4%) 순으로 애로가 많았다.

이에 따라 해결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응답기업들은 수입 통관 애로해소를 위해서 ▲국가별 통관·인증 정보 통합 제공(68%) ▲해외 수입통관 처리 자동화 서비스(59.9%) ▲국가별 맞춤형 서

비스 제공(47.2%)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원이 시급한 물류 분야로는 ▲물류단가 인하(55.4%) ▲디지털 수출 통관 지원(38.5%) ▲물류 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 제공(36%) ▲디지털 물류 중개 플랫폼(31%)을 주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 주도의 물류 플랫폼 구축 시 이용률의 향상이 있다는 기업은 90.6%에 달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글로벌 물류난 지속에 따라 온라인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중진공은 향후 물류 디지털화 및 물류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노사 임금협약 조인식 진행

코웨이 노사가 2021년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손을 잡았다.

15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G타워에 위치한 본사에서 ‘2021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해 6월 말 코웨이지부(설치 및 AS기사), CL지부(영업관리직)와 임금교섭을 시작해 올해 4월 2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코웨이지부 76%, CL지부 93% 찬성으로 임금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이번 ‘2021년 임금협약 조인식’에는 이해선 코웨이 부회장과 이현철 전국가 전통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코웨이 노사는 선진적인 상생 문화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 가치 극대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노사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노사문화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해선 코웨이 부회장(왼쪽)과 이현철 전국가 전통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금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사간 협력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며 고객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KCC글라스, 고단열 창호 ‘홈씨 윈도우 5’ 선택 KCC글라스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 인테리어’가 고단열 창호 ‘홈씨 윈도우 5’를 새로 내놨다. 15일 KCC글라스에 따르면 홈씨 윈도우 5+는 앞서 출시한 ‘홈씨 윈도우 5’의 단열 성능과 디자인을 바꾼 제품으로, 슬라이딩(미닫이) 개폐 방식에 시스템 창호 수준의 높은 단열 성능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KCC

중기부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10개 기업선정... 최대 1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2022년 상반기 해외실증(PoC) 지원사업’에 참여할 10개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창업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에 ▲해외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사전 컨설팅, 실증 방법론 정립, 현지 제품설치, 테스트 수행에서 보완까지 해외실증 전 단계 컨설팅 ▲해외실증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은 해외 대기업과 쉽고 빠르게 신기술·신제품 검증을 협의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제품 상용화부터 기술수출, 사업 확장을 위한 레퍼런스 확보까지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상반기에는 빅뱅엔젤스와 동남아시아 해외 실증을, 하반기에는 한국무역협회와 유럽 해외 실증을 각각 진행한다. 선정기업에게는 해외실증자금을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창업진흥원과 빅뱅엔젤스가 발굴한 헬스케어, 유통, 핀테크 분야 등 총 17개의 유니콘·대기업이 국내 창업기업에 현지 인프라·플랫폼을 제공한다.

창업기업은 세계적인 보험회사 ‘악사(AXA)’, 헬스테크놀로지 ‘필립스(Philips)’, 차량공유 플랫폼 ‘그랩(Grab)’, 동남아시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라자다(Lazada)’ 및 전문의사 네트워크 ‘닥퀴티(Docquity)’,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 ‘니움(NIUM)’ 등과 손잡고 동남아 시장 진출을 타진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산업부, 원전수출기반 다진다 수주역량 강화에 47.9억 투입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 시행
민관 수주역량 집결... 경쟁력 ↑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조속 가동”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 민관의 노력이 본격 추진된다. 원전 생태계 복원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 재고를 위해 총 47억9000만원(국비 33.2억원) 규모의 ‘2022년도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확산과 에너지 안보 중요성 증가 등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원전수출이 원전 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이번 사업을 활용해 민관의 수주역량을 총 결집해 해외 원전수주 가능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올해 2월 원전을 택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소노미에 포함했고, 내년부터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육성할 예정이다, 4월 영국도 원전비중을 현재 16%에서 최소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체코, 폴란드 등 원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수출 네트워크 구축, 기자재 수출지원, 기반조성 등 다양한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 수출 로드쇼, 원전수출대상국 정부와 산업계 학계 주요인사 초청,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이미지 제고와 기술력을 홍보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등 국내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의 해외 기자재 수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원전 및 기자재 발주정보 입수, 수출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관은 “신규 원전 및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생산·수출 막힌 식용유... 소비자가 고공행진
최대 해바라기유 수출국이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면서 생산과 수출이 막혀 식용유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오뚜기 콩기름(900mL)의 5월 평균 판매가격은 491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74원)보다 33.8% 올랐다. 같은 기간 해표 식용유(900mL)는 4071원에서 4477원으로 상승했다. 15일 오전 서울시내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식용유를 고르고 있다. /뉴스

고용부, 건설현장 ‘12대 기인물’ 집중 점검

3년간 사망사고 60% ‘기인물’ 원인
“기본적인 조치 지켰다면 예방 가능”

최근 3년간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0명 중 6명 팔로 지게차나 사다리 등 12대 주요 시설·장비(기인물)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1000곳 이상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관련 집중 점검을 벌인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자 566명 중 344명(60.8%)이 12대 기인물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를 보면 옥상이나 통로의 끝처럼 끊어지거나 잘린 부분(단부)·창문처럼 열렸거나 뚫린 부분(개구부)에서 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붕 40명, 비계·작업 발판 39명, 굴착기·고소 작업대 각 28명, 사다리 22명, 달비 21명, 트럭 19명, 이동식 비계 18명, 거꾸집·동바리 17명, 이동식 크레인 13

명 등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 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하며, 그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바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며 “개구부 덮개 고정,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 지켰다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오는 25일 전국 1000곳 이상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사망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대규모 건설공사와 달리 1~50억원 건설공사는 대부분 위험요인을 비교적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중소 건설사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하청업체 40%, 원자재값 인상에도 단가 제자리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사실상 인상분 부담 모두 떠안아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라 철강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중소 하청업체 10곳 중 4곳 이상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올려받지 못하고 부담을 모두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한편 오는 7월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4월 6일 ~ 5월 6일까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01개 업체가 응답했다. 최근 철광석과 철스크랩, 철판 등 철강류와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제지류, 목재류 등의 가격이 급등했다.

조사결과,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 /뉴스

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에 그쳤고, 조항이 아예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37.9%였다.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요청에 51.2%만 협의를 개시했고,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는 48.8%에 달했다.

응답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도급법상 원재자 등 가격상승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54.6%에 달하는 등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이에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시장상황과 조정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하게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련기관과 협업해 원자재 가격 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5월말부터는 계약서 반영과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상의,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로 현장설명을 실시한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와 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도 배포할 계획이다.

4월부터 가동중인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인도, 밀 수출 중단...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영향 제한적”

인도가 자국 내 이상고온으로 인해 밀 작황 부진이 예상되면서 밀 수출을 중단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전 세계 밀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 국내 밀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도의 밀 수출 중단으로 국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의 밀 수출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밀 수급·가격

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 3위 밀 생산국이지만 수출량은 전세계 수출량의 4% 수준을 차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용부, ‘공정채용’ 질서 확립 나선다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 점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출신 지역이나 결혼 여부 등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거짓채용 등을 광고하다 적발된 사업장은 최소 300만원의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자율 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16~27일 약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자율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거짓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 ▲채용강요 등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다.

이어 다음 달 10일까지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다음 달 13~30일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459곳 대비 약 30% 늘어났다.

고용부는 특히,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점검 기간에도 건설현장 120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병수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장은 “채용절차법뿐 아니라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범부처 합동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공정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불공정 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해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며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사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내신 자신 없다면... 교과 일부·미반영 공략 '합격 가능성 UP'

가천대 우수한 4개학기 교과 반영
동국대 상위 10과목 교과성적 반영
덕성여대·명지대·서울여대
 상위 일부과목 반영방법 유지
건대·연대·항공대·덕성여대·성대
 논술 100% 반영해 신입생 선발

대학입시 수시 전형에서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이 합격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만, 일부 교과만 반영하거나 교과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을 공략하면 내신이 낮더라도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내신 성적 중 일부 교과만 반영하는 일부 대학 교과전형이나, 내신 영향력이 적은 논술 전형 지원이 내신의 불리함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수시 지원 전략책으로 꼽힌다.

◆일부 대학, 교과전형에서 일부 교과만 반영

학생부교과전형은 수시 중에서도 특히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큰 전형이다. 더욱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교과전형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교과에 대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전 과목을 반영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몇몇 대학에서는 전 과목이 아닌 일부 과목만 반영해 성적을 산출한다. 주요 교과 전 과목 성적이 골고루 우수하지는 않은 학생, 일부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눈여겨볼 만한 대학들이다.

〈2023학년도 교과전형에서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수도권 일부)〉

| 대학 | 전형명 | 전형방법 | 교과 반영 방법 | 수능최저 |
|------|---------|--------------------------------|---|----------------------|
| 가천대 | 학생부우수자 | 교과100 | 인문: 국, 영, 수, 사 자연: 국, 영, 수, 과 우수한 4개 학기 반영 (우수 학기 순 40 : 30 : 20 : 10) | O |
| | 지역균형 | 1단계: 교과100 2단계: 교과 50, 면접50 | 국, 영, 수, 사/과 중 상위3개 교과와 각 상위 4개 과목 반영 | X (의예/한의예/약학은 적용) |
| 덕성여대 | 학생부100% | 교과100 | 인문: 국, 영, 수, 사, 한국사 자연: 국, 영, 수, 과, 한국사 석차등급 상위 10과목 반영 | O |
| 동국대 | 학교장추천인재 | 교과70, 서류종합평가30 | 인문: 국, 영, 수, 사, 한국사 자연: 국, 영, 수, 과, 한국사 석차등급 상위 10과목 반영 | X |
| | 학교장추천 | 교과100 | 인문: 국, 영, 수, 사 자연: 국, 영, 수, 과 교과별 상위 4과목 반영 (진로선택과목 상위 2과목 추가 반영) | X |
| 명지대 | 교과면접 | 1단계: 교과100 2단계: 교과 70, 면접30 | 인문: 국, 영, 수, 사 자연: 국, 영, 수, 과 교과별 상위 4과목 반영 (진로선택과목 상위 2과목 추가 반영) | X |
| | 교과우수자 | 교과100 | 국, 영, 수, 사/과 교과별 상위 3과목 반영 | O |

* 대학별 2023학년도 전형계획 확인(2022.05.03)

가천대는 학기별로 성적을 산출해 우수한 4개 학기만 반영한다. 4개 학기에 대해서는 우수한 학기 순으로 '40대 30대 20대 10'의 비율로 반영해 수험생에게 유리하다.

동국대는 교과전형에 서류종합평가를 반영한다. 전년도 40%였던 서류 평가 비율을 30% 낮추면서 교과 반영비율이 60%에서 70%로 증가하긴 했지만, 교과성적을 상위 10과목만 반영한다.

또한 석차등급 1등급과 2등급의 반영 점수 차가 0.01점이고 1등급과 3등급 간에도 0.05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교과 성적보다는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큰 셈이다.

덕성여대, 명지대, 서울여대는 전년도에 이어 2023학년도에도 교과별 상위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방법을 유지했다. 덕성여대는 상위 3개 교과와 각 상위 4개 과목씩 총 12과목을, 서울여대는 4개 교과별 상위 3과목씩 총 12과목을 반영한다. 명지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개 교과별 상위 4과목씩 총 16과목을 반영하되, 올해는 반영교과 내 진로 선택과목 상위성취도 2과목을 추가해 반영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이처럼 일부 과목만 반영할 경우 지원자 성적이 대체로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결과를 참고해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거나 면접을 실시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입시에서는 서강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 8개 대학에서 수시

교과전형을 확대했다.

대성학원 관계자는 "전형별로 보면, 주요 8개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10% 이상 많은 학생을 선발한다"며 "대부분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하는데,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 '내신 영향력 적음' 논술 전형...건대·연대·항공대, 논술성적만 반영

대부분의 수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지만 논술전형만 큰 예외다.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많은 대학에서 교과성적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내신 성적 영향력이 적은 편이고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

건국대와 연세대, 한국항공대가 논

술전형에서 논술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이어, 올해는 덕성여대와 성균관대도 논술10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한양대는 논술전형에서 논술점수 외에 학생부종합평가를 반영하지만 내신 성적이 아닌 출결, 수상경력, 봉사활동 등을 참고해 학생의 학교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종합 평가한다. 이마저도 반영비율이 기존 20%에서 올해는 10%로 감소하면서 논술시험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서강대와 홍익대는 교과성적을 반영하지만 반영 비율이 10%에 그쳐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작다.

단, 논술전형은 모든 전형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는 특징이다. 지원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학교생활기록부 경쟁력이 낮은 학생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성균관대 약학 논술전형의 경우 5명 모집에 3332명이 지원해 66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우연철 소장은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수시 합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정시로 눈을 돌리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높게 설정된 경우 합격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등 대학의 내신 반영 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등에 따라 비교적 낮은 내신으로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과 전형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미래 개척, 탁월한 교육·연구기관 돼야”

연세대 '창립 137주년 기념식' 사회봉사상 등 각종 시상식 진행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가 창립 137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학내 백주년 기념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 이사장(GS칼텍스 명예회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 유경선 연세대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승환 총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지금 우리 연세대는 도약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137주년의 유구한 역사가 웅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산적한 과제에 대해 분명한 해법을 제공하고, 선도적으로 인류 공동체의 미래를 개척해 가는 탁월한 교육·연구기관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연세사회봉사상·



지난 14일 연세대 창립 137주년 기념식에서 서승환 총장이 창립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세대

창업대상·의학대상·학술상·장기근속상·우수업적직원상 등 각종 시상식도 진행됐다.

연세사회봉사상은 소아암NGO한빛(대상), 윤종환 멘토링&강연 교육기부 봉사단 단장(우수상(진리))이 수상했으며, 창업(스타트업)대상은 형우진 의과

대학 교수 겸 ㈜휴툰 대표·이혜영 보건과학대학 교수 겸 ㈜이노제닉스 대표(교원부문), 권인택 ㈜오른손 대표(동문부문), 정재원 ㈜유니브 대표·박진아 ㈜인스팅터스 대표(학생부문)에게 돌아갔다.

/이현진 기자

“2025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 노력을”

건국대 '개교 76주년 기념식'

건국대학교가 지난 13일 교내 학생회관 프라임홀에서 교수, 학생,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76주년 기념식'을 열고 오는 2031년, 창학 100년을 향한 혁신과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전영재 총장은 대학평가 순위 상승, 각종 재정지원 사업 선정 등 지난해 주요 성과와 함께 중장기 발전전략인 '파이오니어 건국 2025(PIONEER KONKUKU 2025)'의 발전목표를 향한 노력을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도

전과 혁신의 물살을 타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며 "2025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2031년은 창학 100주년"이라며 "항상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민족을 위해 마음을 비운다"는 설립자의 철학을 떠올리며 건국의 가치를 재정의해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개교기념식을 맞아 송영화 기술경영학과 교수 등에게 학술상이, 김성환 응용통계학과 교수 등에게 연구공로상이 수여됐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유학생에 한국어 글쓰기 교육

자주 틀리는 표현 등 교육 진행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줌(ZOOM) 집중과정 한국어 글쓰기 교육을 진행한다

외국인의 한국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중급 이상의 한국어 글쓰기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육과정은 ▲정확한 한국어 문장 쓰기 ▲자주 틀리는 표현 ▲재학 생활에 필요한 보고서 ▲발표 자료 작성

방법이다. 대상은 세종대 유학생 및 교직원 중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은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화, 목 14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5월 16일까지이며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신청 시 보증금 10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80% 이상 출석하면 전액을 돌려준다. /이현진 기자

국민대, 클래식 연주회 '호프 어게인'

코로나 완전한 종식 기원 기획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가 거리두기 해제 시행으로 캠퍼스가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호프 어게인(Hope Again)' 행사를 통해 관현악의 아름다운 선율로 희망을 나눴다. 15일 국민대에 따르면, 학생지원팀과 예술대학 음악학부 학생들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클래식 연주회 '호프 어게인'을 열었다.

이번 연주회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원하며 일상 회복 가능성을 공

유하고자 기획됐다. 음악학부 학생들은 국민대 민주광장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어 학내 구성원들에게 '서로가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고 일상에서 힘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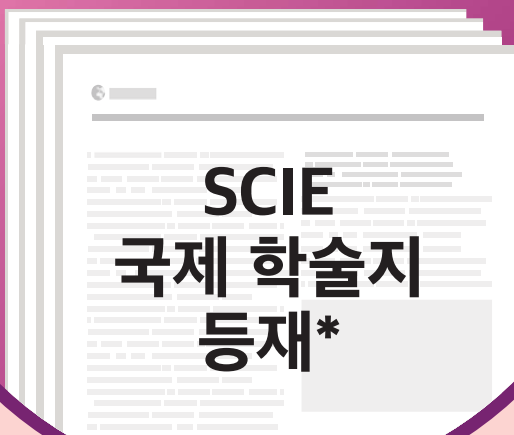
특히, 스승의 날을 앞둔 3일차에는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성악전공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 노래를 제창했다. 공연에 참여한 음악학부 학생들은 "오랜 만에 많은 관객 앞에서 연주할 수 있어서 연주를 준비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



편안하고 안전한
갱년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백수오**를 모르죠?

갱년기엔 유한백수오로알

에스트로겐 수용체 **활성**·**유지**·**증진**
백수오



유한백수오 로얄



광고심의필: 211210694
판매원:(주)유한양행 제조원:(주)서흥

특목고 자기주도학습 전형 선발... 일반고 다자녀 기준 완화

부산교육청 2023 고입전형 계획

특목고·자사고 정원 20%
사회 통합전형으로 선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고입전형 주요 내용과 학교 유형별 진로·진학 정보를 담은 '2023학년도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전기 학교(▲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와 후기 학교(▲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학교장전형 일반고 ▲평준화적용 일반고)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가운데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는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배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들 학교는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침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국가보훈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23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상자 자녀 가운데 교육지원대상자는 정원 외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특성화고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는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전형에 앞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 등을 고려해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평준화적용 일반고는 '광역학군과 지역학군에 대한 1~4지망 선 복수지원 후 추천배정' 및 '주소지 정보에 의

한 통학권 내 지리정보 배정' 방식으로 컴퓨터의 무작위 추첨 배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올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주요 변경 사항은 평준화적용 일반고 배정 시 다자녀의 기준을 네 자녀에서 세 자녀로 완화, 적용하고 둘째 자녀부터 희망에 따라 평준화적용 일반고 1, 2학년에 재학 중인 형제 또는 자매와 동일 교에 배정한다.

평준화적용 일반고 배정 시 기존 쌍생아에만 적용되던 것을 한 가정에 같은 학년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등 동일교 배정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해 2023학년도 고입 전형에서도 봉사활동 기준 시간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5시간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고입전형 기본 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5월 13일과 1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남부교육지원청 및 해운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고입전형 기본 계획 연수'를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기본계획은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등에게 입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 진학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숲치유 콘테스트 3개부문 수상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신안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열린 2022 숲치유 프로그램 콘테스트에서 산림치유와 숲해설, 유아숲교육, 3개 부문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콘테스트는 전남도 주관으로 코로나 시대 숲속 힐링을 확대하고 산림휴양치유 프로그램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숲속 치유·휴양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교육, 3개 분야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31명 중 현장시연을 통해 최종 수상자 13명이 선정됐다. 이중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유아숲교육 분야에서 우수상, 산림치유 분야 및 숲해설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66.8ha 숲에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을 심어 사계절 볼거리가 풍부하다. 산림휴양 명소로 알려져 지난해 21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전남=양수영 기자

밀양시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추진

밀양시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조기 해소 및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2022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3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2225건 2343만 1730원이며,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152건 1231만 1470원(53%), 지방소득세 988건 928만 2640원(40%)이다. 금액별로는 1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이 1660건(74%)으로 가장 많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와 국세인 종합소득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광주시, 겨울철 재난대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2022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정부합동평가에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겨울철 사전 대비 실태와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4개월 간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조치 성과를 종합 평가했다.

시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단체장의 높은 관심도, 유관기관과의 협업, 폭설 대응 합동 훈련, 피해 최소화와 대시민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설로 광주 남구와 전남 화순군 경계지역인 철구재 터널입구 도로에 교통장애가 발생했을 때 협업을 통해 신속히 해결한 것은 전국적인 협업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또 지난해 최우수 선정으로 확보한 상급 특별교부세 5억원 전액을 ▲세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세설자재 확충과 제설장비 현대화 ▲상수도 계량기 동파방지 팩 지원 ▲취약계층 방한물품 지원 등 겨울철 재난예방 사업에 재투자해 재난대책을 적극 추진한 것도 우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전남 농촌서 살아볼까”... 귀농사업 인기

귀농형·귀촌형·프로젝트형 운영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

전라남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국 도시민을 전남으로 이끌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일정 기간 거주공간과 농촌·영농체험, 지역문화 탐방 등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남도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운영할 도내 21개 시군 27개 마을을 선정하고, 제1기 참가자 145명을 모집해 마을별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함평군 해당화체험휴양마을)

/전남도청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형, 3개로 나뉜다. 특히 도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형은 단

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이를 취·창업 기회로 연결한다. 현재 청년 3명이 함평 해당화 마을에서 해당화와 허브를 활용한 화

장품·향수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확인 결과 올해 전국 시·도에서 115개 마을을 운영하는데 이중 전남이 가장 많은 27개, 경북 20개, 충북·경남 각 16개, 전북 14개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마을이 가장 많아 선택의 폭이 넓고, 지역에 맞는 체험·영농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가자의 만족도도 높아,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서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 18세 이상 타 지역 거주 도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개인당 월 30만원의 참가 연수비와 함께 1개월에서 최장 6개월 동안 농촌생활에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도, 식품안전관리 평가 전국 최우수

감염병 확산 방지 부분 높은 평가

경북도가 올해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3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서 수상했다.

경북도는 ▲식품안전 기반(감시원수, 교육 등) 3개 ▲기초위생관리(점검, 민원처리, 방역점검 등) 7개 ▲정부 주요정책(수거검사, 이행률) 2개

등 14개 평가항목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명절대비 성수식품 및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는 지역 외식산업 위기를 극복하고자 주방환경개선 및 K-키친 모델개발 등 경북형 K-키친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광역단체 최초로 광역급식관리지원센터 모델을 개발해 공공먹거리 안전시스템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광주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오늘부터 31일까지 진행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채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기업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16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제3회 광주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연다.

일자리박람회는 16일간 온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광주시와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광산업진흥회, 전남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행사로, 인터넷 잡코리아와 광주잡넷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구인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우수기업을 연계해 일상생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광산업 등 주요 분야의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1일까지 광주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운영사무국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2017년부터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운영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에는 모두 7차례 박람회를 열어 388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김태수 기자

韓 성공신화 ‘아이허브’... 결제편의+빠른배송 직구전략 好好

美 헬스케어 1위... 매출 95% 해외 시장 공략 ‘현지화·물류시설’ 주요 전세기 등 배송 위해 손해 감수도



지난 2020년 12월 블랙프라이데이 직후 아이허브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 사진. 화물칸 뿐 아니라 항공기 좌석, 짐칸까지 상품이 가득 채워져있다. 상품 대부분은 건강기능성식품과 영양제다. /아이허브

‘글로벌 유통사의 무덤’ 한국을 토대로 성장한 해외기업이 있다. 아이허브(iHerb)다. 세계 최대 건강보조제품 및 생활용품 온라인 유통기업인 아이허브의 성공담에는 ‘한국 고객의 주문’이 꼭 등장한다. 국내 e커머스가 최근 잇따라 해외직구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이허브의 위세는 대단하다.

시장 현황 최대 리서치 포털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아이허브의 지난해 순매출액은 14억 8360만 달러(약 2조원)에 달하며 미국 내에서는 헬스케어 유통 1위에 달한다. 국내 판매고는 지난 2월 아이허브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1년 한국시장 매출이 전년도 대비 22% 성장했다.

지난 2월 아이허브가 모바일서비스 전문업체 오픈서베이와 지난해 12월 6

개월 이내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500명(2050 남녀, 복수응답 가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이허브는 미국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 유명 직구 플랫폼 7개 쇼핑몰로 나타났다. 아이허브에서 일어나는 매출 95%는 해외에서 일어나는데, 한국을 통한 매출이 상위 매출 국가 3위권 내로 알려져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사실상 아이허브의 매출 1위를

차지 중인 건 한국일 것으로 본다. 아이허브가 국내서 해외 직구 붐이 일기 시작하던 2010년 경 처음으로 국내 블로그 등을 통해 ‘비타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로 이름을 알렸다. 아이허브에 들어간 첫 미국 외 주문은 실제로는 당시 아이허브 플랫폼의 국외 결제 기능을 차단하지 않은 데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매출 증대를 본 아이허브는 기존 영어 쇼핑몰에 한국어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이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언급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0년 하반기부터지만 전년 동기 대비 100% 언급량이 증가한 때는 한국어 지원을 포함한 결제수단 확충 등을 시작한 2012년이다.

아이허브가 한국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데에는 현지화 전략과 물류시설 확충이 꼽힌다.

국내 시장에 진입했다가 철수한 아마존 등이 페이팔 등 한국 고객이 쓰기 어려운 결제 수단만을 지원하던 때 아이허브는 빠르게 한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결제수단을 확충하고 2019년 한국인 CMO 스티브 조를 영입한 데 이어 국내 홍보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국내 마케팅에 들어가 본격적인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최대 10일이 걸리는 해외 직구의 가장 큰 단점인 물류를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전용 물류센터를 통한 빠른 배송을 보장했다. 이마저 어려울 때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배송을 보장했다.

지난 2020년 12월 블랙프라이데이 직후, 아이허브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화물칸 뿐 아니라 항공기 좌석, 짐칸까지 자사 제품을 가득 채운 사진을 공개했다. 아이허브는 “빠른 배송원칙을 지키기 위한 전세 비행기”라고 밝혔다.

다른 관점에서는 아이허브가 취급하는 주요 상품군이 이른바 ‘실패할 수 없는 상품군’이라는 평가도 있다. 아이허브는 건강기능성식품과 영양제, 생활용품 등을 주요하게 다룬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허브가 저렴한 가격과 미국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현지화 전략에 성공한 점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국내 e커머스 해외 직구 서비스에서의 건기식과 영양제가 주요 상품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제주개발공사-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자원순환 확산 MOU

제주삼다수 생산 전 과정 친환경 접목 강화

무라벨 제품 생산 등 탄소중립 박차 재활용 촉진 등 협조체계 구축 계획



제주개발공사 한재호 생산이사, 한국환경공단 송재식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이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고래리에 위치한 제주삼다수 본사 연구동에서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

제주삼다수의 생산부터 유통, 회수, 재활용까지 제품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친환경 경영을 추진 중인 제주개발공사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힘을 모은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13일 제주도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개발공사 본사 연구동에서 한재호 생산이사과 송재식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무라벨 제품 생산 확대

등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과 제품의 재활용 증대에 대한 상생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하기 위

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기관은 ▲무라벨 ‘제주삼다수 그린’ 생산 확대 ▲페트 재활용 촉진 강화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대한 홍보 ▲탄소중립 기여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개발공사는 한국환경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무라벨 제품인 ‘제주삼다수 그린’의 생산을 확대하고 용기 경량화, 재생원료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공단은 포장재 재활용 관련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 사항을 지원하는 등 제주개발공사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비전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슈퍼와 함께 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B.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AI 빅데이터 인식 등 5개 분야 모집

서비스를 시장에 검증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롯데슈퍼는 16일부터 롯데벤처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B.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2022’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인적 대응 없는 전화 주문 서비스 ▲매장 상태 인식(결품·진열) ▲고객 스스로(Self Check) 계산 ▲AI 빅데이터 인식 ▲그 외 롯데슈퍼 고객·매출 증대에 기여 가능한 자유 주제 등 총 5가지다.

‘B.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2022’는 대기업에 필요한 기술력 및 서비스를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기술과

롯데슈퍼에 제안할 기술 및 서비스를 가진 전국 소재의 7년 미만 스타트업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김서현기자

SPC삼립 ‘하이면’ 냉칼국수 신제품

SPC그룹이 운영하는 SPC삼립이 한국인의 미식면 브랜드 ‘하이면’ 냉칼국수 3종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성명례 식품 명인의 전통 간장과 고소한 들기름 소스를 더한 ‘홍천식 비빔 냉칼국수’, 감순옥 식품 명인의 찹쌀고추장을 사용해 매콤하고 새콤한 맛이 특징인 ‘순창식 명인 비빔 냉칼국수’, 제주산 무 등치미와 사골육수로 시원한 맛이 일품인 ‘제주식 등치미 냉칼국수’ 등 3종이다.

특히 제품에 사용된 면은 1만 번 치면 면발로 탱탱하고 쫄깃한 면이 특징이다. 제품은 전국대형마트 및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 판매처에서 만나볼 수 있다. 권장소비자가격은 5980원이다.

/신원선 기자

파리바게뜨, ‘셀프래더세트’ 한정판 출시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피크 협업



파리바게뜨X노스피크 캠핑 굿즈 ‘셀프래더세트’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앞두고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피크(North Peak)’와 협업해 캠핑 굿즈 ‘셀프래더세트’를 한정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셀프래더세트’는 파리바게뜨와 노스피크가 협업해 선보이는 캠핑 굿즈 1탄으로, 뛰어난 실용성과 노스피크만의 세련된 감성을 담은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야외에서는 다용도 쉘프로, 실내에서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 가능한 ‘셀프래더’ ▲캠핑장 및 일상생활에서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폴딩바스켓’ ▲셀프래더와 바스켓을 모두 담을 수 있는 편리하고 넉

넉한 ‘전용 가방’까지 활용도 높은 캠핑 굿즈 3종세트로 구성됐으며 은은한 카키 컬러로 힙한 감성을 더했다.

‘셀프래더세트’의 현장 판매는 사전 예약 기간 이후인 5월 20일부터 소진시 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어서 노스피크와의 콜라보 캠핑굿즈를 선보일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그룹 스마일클럽 회원에 스벅 굿즈 판매

회원전용 스벅 e프리렌시 상품 마련

10시에 순차 판매된다.

SSG닷컴과 지마켓글로벌은 통합멤버십 스마일클럽 회원에 대상으로 회원 전용 스벅 e프리렌시 상품을 온라인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e프리렌시 상품 판매처는 SSG닷컴과 지마켓글로벌이 운영하는 G마켓, 옥션으로 오는 16일과 20일, 24일 오전

판매 상품은 ‘서머캐리백’ 5종과 ‘서머캐린파우치’ 1종 등 총 6가지다. 서머캐린 파우치는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작은 레드백 스타일 가방이다. SKC컴퍼니는 서머 캐린 파우치 역시 스마일클럽 전용 색상인 크림 색상을 기획해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피자알블로 “당신의 스무살을 응원합니다”

‘대새피자’ 주문시 치킨 선물

치킨’을 증정한다.

피자 브랜드 피자알블로가 성년의 날을 맞아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당신의 스무살,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성인이 된 기념으로 피자를 먹고 치킨을 선물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로, 피자알블로의 신메뉴 ‘대새피자’ 주문 시 대새피자와 콜라보한 바르치킨의 ‘대새레드

피자알블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대새피자’를 배달 주문하는 멤버십 회원에 한해 자동으로 응모되며, 마케팅 SMS 수신 동의가 필요하다.

피자알블로는 참여 회원 중 100명을 선정해 ‘대새레드치킨’ e쿠폰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오는 23일 피자알블로 공식 홈페이지의 이벤트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바르면 '수분광' 꿀피부... AGE 20's 팩트, 日서 '열광'

애경 AGE 20's 팩트 제품력 우수
日 전역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중
파운데이션에 수분에센스 함유
촉촉함·커버력 모두 갖춰 인기



AGE 20's의 팩트 제품 등이 일본 온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채널에 본격 진출했다. /애경산업

국내 다수의 뷰티 브랜드들이 일본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쏟아붓는 가운데, 애경산업의 AGE 20's 팩트가 우수한 제품력으로 온라인 채널에서 일본 전역의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 중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2021년 기준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378억 달러로 3위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독일의 시장 및 소비자 데이터 전문 기관 STATISTA의 조사 기준을 보면 1위는 미국으로 802억 달러, 2위 중국 517억 달러,

한국은 10위 120억 달러에 이른다.

또한 일본은 미의식이 높은 국가로 이미 세계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 진출해 있으며 이니스프리, 미샤 등 국내 다수의 브랜드들도 일본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한 에디션 출시하는 등 현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자사 대표 브랜드인 AGE

20's의 팩트의 합리적인 가격, 높은 품질, 우수한 디자인을 내세워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 AGE 20's 에센스 커버팩트는 에센스를 함유한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수분광 피부가 완성되는 K-뷰티 대표 제품으로 소개되며 일본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에센스 포켓기술'로 고체 파운데이션

속에 고농축수분 에센스가 함유된 독특한 제형과 촉촉함, 커버력을 모두 갖춘 탄탄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다.

현재 4차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아이돌 메이크업 따라하기 등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어 일본 현지에서의 한국 화장품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핵심 타깃층이 있는 온라인 채널부터 개척해나갔다. 애경산업은 지난해부터 일본 온라인 플랫폼 라쿠텐, 큐텐재팬에 진출해 해당 제품을 판매해왔다. 큐텐재팬 내 애경산업의 공식 브랜드관인 'AK BEAUTY OFFICIAL'을 열어 AGE 20's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지속해 왔다. 디지털 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인 일본 온라인 채널 발굴 및 인점, 판매 채널의 다변화 및 마케팅을 통해 1분기 실적 방어에 성과를

얻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일본 화장품 시장은 타국 브랜드에 대해 보수적인 시장이지만,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여 에이지투웨니스 등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고 일본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경산업은 AGE 20's 팩트의 우수한 제품력을 일본 각지의 고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 등 인지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에센스 커버팩트'와 '시그니처 에센스 커버 톤업 베이스' 등을 이온몰, 로프트 등 일본 주요 10개 오프라인 채널에 선보여 인지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LG생활건강, 日에 '마이크로바이옴 센터'

홋카이도 오타루시에 센터 설립
글로벌 뷰티사업 경쟁력 강화 일환
자연발효 생산시스템 등 구축중



일본 홋카이도 마이크로바이옴센터 전경.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북미와 일본 등 글로벌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전세계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센터'를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에 설립했다고 15일 밝혔다.

홋카이도는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유익한 발효 균주를 연구하기 좋은 청정환경과 피부에 유용한 영양 식물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대를 이어 내려오는 전통 장인의 발효 비법과 홋카이도 대학을 비롯한 우수한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마이크로바이옴 원료의 생산과 연구에 최적의 장소이다.

LG생활건강은 홋카이도 지역에서 수집한 다양한 피부 유용 식물을 자연 발효하는 숙성 시설과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연구하고 다양한 피부 효능을 지닌 발효 균주를 분리하는 실험실을 현지에서 확보한 것이다.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센터는 글로벌 뷰티 사업 운영을 위한 자연발효 생산 시스템과 발효 균주 라이브러리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고객 감성과 피부 경험을 고려한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 소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센터에 독자 발효 소재 기업과 글로벌 수준의 발효 균주 생산 플랫폼 기능을 구축, 미래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마이크로바이옴 센터는 연구 시설과 함께 전시를 겸비한 복합 공간으

로, LG생활건강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의 과거와 현재를 관찰할 수 있도록 제품과 소재를 전시하였으며, 자연과 어우러진 발효의 맥락을 고스란히 담아 자연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했다.

한중섭 일본연구소장은 "앞으로 동북아시아 청정지역 홋카이도 마이크로바이옴 센터를 교두보로 삼아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고객에게 사랑받는 자연 발효와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은미 기자

GC지놈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

"R&D투자 결과... 식약처 기준 충족"

GC지놈은 지난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인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GCLP)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은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건을 갖춰 식약처가 지정한 기관이다. 원활한 검체분석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필수인력과 시설 배치, 수시 교육 및 훈련, 임상시험검체의 수령 및 취급시설, 기기(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 시험작업구역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번 지정을 통해 GC지놈은 기존에 실시하던 유전체 빅데이터 AI 기반 임상유전체분석 사업은 물론 임상시험검체분석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기창석 GC지놈 대표는 "암 유전자검사 및 AI 액체생검 기술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식약처



가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며 "환자 진료를 위한 임상검사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검체분석까지 실시하는 국내 유일의 임상유전체 전문 분석기관으로서 항암제 및 희귀 유전질환 신약 개발에 적극 참여해 국내외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C지놈은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난소암 표적항암제 처방 대상자 선별을 위한 상동체조합결핍검사 '그린플랜HRD'를 신의료기술로 승인 받은 바 있다. 또, 자사의 원천기술이 적용된 딥러닝 AI기반 조기 암 진단 액체생검을 개발 중이다.

/원은미 기자

동아쏘시오, 당뇨병 환자 위한 '6.5km 걷기 캠페인'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당뇨병 학연구재단과 당뇨병을 넘어 희망의 걸음 '6.5km 걷기 캠페인' 기념 행사를 실시했다.

기념 행사에는 원규장 당뇨병학연구재단 이사장, 백세현 대한당뇨병학회 회장, 김영설 동아에스티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선언, 축사, 경주 보문호 걷기 등으로 진행됐다.

6.5km 걷기 캠페인에는 당뇨병의 진단 기준 중 하나인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유지하지는 목표가 담겨있다. 캠페인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걷기 운동의 중요성과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



지난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6.5km 걷기 캠페인 기념 행사에서 백세현 대한당뇨병학회 회장(왼쪽 여덟번째부터), 김영설 동아에스티 부사장, 원규장 당뇨병학연구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제약

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당뇨병 환자와 가족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걸음 기부 모바일

앱 어플리케이션 '빅워크'를 다운로드 받아 일상 생활 속에서 측정된 걸음을 6.5km 걷기 캠페인을 선택해 기부하면 된다.

/원은미 기자

스와이프 기능으로 착용모습 보여줘

이랜드의 주얼리 브랜드 로이드가 오는 20일 공식 온라인몰 오픈 1주년을 맞아 커스텀 다이아 서비스를 오픈한다.

로이드는 지난해 5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편한 공식몰을 선보인 바 있다.

AR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착용 서비스를 제공해 화제를 모았다. AR 시착과 구매를 한 번에 이은 윈스톱 몰을 선보이며 고객 편의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강화 전략에 집중해 왔다.

올해는 공휴일 1주년을 맞이해 맞춤형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작할 수 있는 '커스텀 다이아'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다이아몬드의 헤드와 밴드, 캐

릿 사이즈를 직접 고를 수 있으며 스와이프 기능을 통해 실제 손가락에 착용했을 때 모습을 볼 수 있다. 매장에 가지 않고도 나만의 반지를 디자인하고 최종 비용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커스텀 다이아 서비스는 로이드 공식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체험 후기를 남긴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360만원 상당의 화이트 엘다이아 목걸이를 증정한다.

이랜드 로이드 관계자는 "점점 다양해지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어디서든 나만의 상품을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론칭한 것"이라며 "지난 1년간 많은 사랑을 받은 로이드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고객과 소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은미 기자

세상에~이렇게 저렴한 분양가격에 놀랐다!!!

5년 전 분양가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극대공영

계약면적 3.3m²당 500만 원대

부산신항
로얄팰리스 1차



[전 세대 풀옵션 투룸 복층형 프리미엄 오피스텔]

87m²B
464실

- 전용면적 47.9701m²
- 서비스면적(복층형) 26.4464m²
- 공급면적 66.0327m²
- 주차장 20.9902m²
- 계약면적 87.7571m²



※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투자금 3천만 원대 투자로 월세 65만 원 확정

실투자금이란? 분양대금에서 대출금액과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VAT별도)

수익성

- 전 세대 투룸 복층 - 752실
- 주차대수 872대 (넘치는 주차장)
- 신항만·물류·녹산산업단지·트레일러 종사자 등 가덕 신공항 개발의 배후 수요 예상자
- 보증금 1,000만 원 65만 원 신규 수요 대기 중(넘치는 임대 수요)
- 주변 10km 이내 최근 3년 동안 공급 없었다.
- 주변 10km 이내 최근 2년 이내 공급 계획이 아직 없다.

환금성

- 5년 전 분양가로 분양하다 보니 시세차익 발생, 최소 5천만 원~1억 원 정도
-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계약면적 3.3m²당 500만 원대 분양
- 주변 땅값이 5년 전보다 2~3배 올랐다.
- 최근 현장에서 가까운 명지지구 오피스텔 분양가 계약면적 3.3m²당 1000만 원대 분양 중

● 청약계좌: KB국민은행 079801-04-157925

● 예금주: KB부동산신탁(주) (청약금 100만 원, 미계약 시 전액 환불됩니다.)

- 1가구 2주택 제외
- 선시공 후 분양
- 5년전 분양가
- 잔금대출 75%
- 전세대 2룸 복층형
- 월세 65만 확정

분양문의 **1533-0512**

※ 선착순 계약자 혜택: 취득세 전액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LS니코동제련 임직원, 묘목 심으며 공기정화 활동

LS니코동제련은 13일 서울 노을공원 나무자람터에서 '제3회 CU 투마로우 그리너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LS니코동제련은 도석구 사장과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참나무와 자작나무 등 묘목 300그루를 심었다. 도석구 LS니코동제련 사장이(왼쪽에서 6번째)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니코동제련



KRX국민행복재단, 라오스에 엠블런스 차량 기증

한국거래소(KRX)는 국민행복재단이 지난 13일 서울 한남동 주한 라오스대사관에서 티엠 부파 주한 라오스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엠블런스 차량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황원래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장(왼쪽부터),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티엠 부파 주한 라오스 대사, 안춘엽 KRX 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한양대-포스코케미칼, 배터리소재 인재양성 맞손

한양대학교(총장 김우승)가 포스코케미칼(대표 민경준)과 배터리소재 인재양성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15일 한양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한양대는 대학원 배터리공학 과를 신설하고 맞춤형 학위 과정 '이 배터리 트랙(e-Battery Track)'을 운영한다.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대표(왼쪽)과 김우승 총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양대



풀무원푸드머스, 시니어 일자리 창출 앞장

풀무원 계열 식자재 유통 전문기업 풀무원푸드머스는 경기도 남양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 지원 기관인 남양주시니어클럽과 함께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리원 양성 교육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풀무원푸드머스 본사에서 진행된 '조리원 양성과정 실습교육'에서 시니어 참가자들이 위생 교육을 받고 있다. /풀무원



순천향대, '제자사랑 밀알장학금' 전달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13일 교내 접견실에서 '제4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제자 사랑 밀알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왼쪽부터) 김승우 총학생회 부회장, 박병현 총학생회장, 김승우 총장, 허효영 총대의원회장, 주소연 총대의원회 부회장. /순천향대



박 상 오 변호사의 엔터테인먼트 LAW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 그 콘텐츠에 포함되는 모든 구성요소(배경음악, 효과음, 그래픽 등)를 직접 창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콘텐츠는 제3자가 이미 창작한 음악, 영상, 사진 등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물론 이와 같이 제3자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가(사용료 등)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타인의 저작물 사용은 대부분 의도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콘텐츠가 제작되고 콘텐츠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제작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컨대, 특정인의 일상생활을 담은 콘텐츠인 '브

저작권법상 부수적복제 조항

이로그'의 경우 유명한 장소에 방문한 모습,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촬영·편집되어 콘텐츠로 제작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생활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주변 배경으로 사진이나 영상저작물이 포함되기도 하고, 길거리에 재생되어 있던 음악 등이 그대로 녹음돼 브이로그에 포함되기도 한다. 4차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의 분야에서도 현실세계를 가상공간에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복제 등이 발생한다. 메타버스로 서울의 한 동네를 그대로 가상 공간에 옮긴다고 했을 때 그 동네 안에 있는 미술품이 가상공간에도 그대로 재현되면서 복제가 이루어지는 식이다.

이러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콘텐츠의 창작이나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9년 11월 26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부수적 복제 등에 관한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3)을 신설했다. 위 조항의 신설은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 할 목적으로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위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주된 내용은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브이로그에서 배경으로 아주 잠깐 영상저작물 등이 스쳐 지나가듯 포함되는 경우, 가상현실로 옮겨둔 현실의 공간에 부수적으로 미술품이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 등에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위 조항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

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저작권법 제35조의3 단서 부분). 어떠한 경우가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판례 등을 통해서 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면, '미술관을 그대로 가상현실의 공간으로 옮겨서 사용자가 이를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부수적 이용으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므로 위 경우에는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되지만, 해당 조항이 창작자(=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위 조항의 운영에 있어서는 단서 조항의 균형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법인 바른

23만명 눈뜨는 삼성 무료개안사업, 삼성D가 이어간다

진료·수술 지원 '무지개' 재개 150명 임직원 헬퍼 봉사팀 운영

삼성디스플레이가 빛을 선물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의 무료개안사업을 이어받아 '무지개'라는 이름으로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무지개는 무료지원개안사업의 약자로, 임직원 공모를 통해 결정됐다. 삼성이 1995년부터 이어온 사회공헌활동으로, 2020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가 맡게 됐지만 코로나19로 중단했다가 다시 이어가게 됐다. 무료개안사업은 그동안 눈 질환과 시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23만명의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무료 안과 진료 및 수술을 지원해왔다. 본격적인 사업 재개에 앞서 안과 질환에 대한 의뢰비 혜택이 확대되는 등



지난 2일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캠퍼스에서 무료개안사업 재개를 기념해 열린 사내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임직원들의 모습. /삼성디스플레이

국내 의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무지개 사업 분야와 대상을 전문적인 안과 진료와 검사, 수술이 필요한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발족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시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이 마음 편히 병원 진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무지개 헬퍼' 봉사팀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0여 명의 임직원들로 이뤄진 '무지개 헬퍼' 봉사팀은 사업 대상자가 주거지역에서 병원까지 보다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차량 지원과 이동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디스플레이는 '무지개 사업' 재개를 기념하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5월 2일을 '무지개 데이'로 지정, 사업장 내에서 경연전 및 임직원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어린이 초청행사,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 등을 개최,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구자학 아워홈 회장, '사업보국' 뿌리 내리고 영면

4일간 회사장으로 장례 치러 유족·임직원 애도 속 영결식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이 15일 영면에 들었다. 지난 12일 별세한 구 회장의 영결식은 15일 오전 7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아워홈 임직원들의 애도 속에 진행됐다. 고인의 배우자 이숙희 씨와 장남인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막내딸 구지은 현 아워홈 부회장, 장·차녀인 미현·명진 씨가 자리했다. 강유식 고문(LG연암학원 이사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아 4일간 회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구자학 아워홈 회장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뉴시스

사장으로 치러졌으며,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및 약력 소개, 추도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전개됐다.

장지는 경기 광주시 광주공원묘원이다. 고인은 1930년 고 구인회 LG

를 창업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진주고등학교를 마치고 해군사관학교에 진학, 1959년 소령으로 전역했다. 군복무 시절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총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호국영웅기장 등 다수의 훈장을 수여받았다.

1960년 한일은행을 시작으로 호텔신라, 제일제당, 중앙개발, 럭키(현 LG화학), 금성사(현 LG전자), 금성일렉트론(현 SK하이닉스), LG건설(현 GS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했다.

이후 2000년 LG유통(현 GS리테일) FS사업부(푸드서비스 사업부)로부터 분리 독립한 ㈜아워홈의 회장으로 취임해 20여년간 아워홈을 이끌었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슬리퍼 신고 훈련받는 비상근 예비군



문형철 기자
어수선하軍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 훈련(년간 15일)이 사실상 2년 넘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일까. 며칠 전 참석한 ‘비상근복무 예비군’ 소집훈련에서 우려되는 모습들을 목격했다. 질적 성장 없이 양적 성장만 해 온 제도의 중간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심각한 ‘병력자원 부족’과 ‘숙련병력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4년 70여명의 예비역 군간부들이 복무를 시작한 이래 현재는 2000여명으로 성장했다. 6월부터는 연간 180일을 복무하는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 제도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복무 인원’과 ‘복무 일수’는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렇지만,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아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비상근복무를 하는 예비군들의 전력유지를 위한 질적 성장도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 2019년부터 두 곳의 지정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점은 복무자의 자질

이 평균적으로 하락해 간다는 것이다. 예 산확보와 성과도출을 위해, ‘계급과 병과에 맞는 보직(적소보직)인지’ 또는 ‘복무 간 다른 예비군의 모범이 되는 성실근무를 하는지’에 대한 내실적 평가 없이 비상근 복무자를 늘려 왔다.

지원자를 늘리는데만 집중해 온 듯한 당국의 태도는 ‘성실복무 예비군’들의 ‘이탈과 신뢰감 붕괴’로 이어졌다. 지난 2년 사이 비상근복무 우수자로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 다수의 예비역 장교들이 비상근 복무 경험이 없는 후배들에 밀려 재선발되지 않는 일도 벌어졌다. 선발되지 않은 자들이 군당국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적소보직이 아니니 재선발하지 않는다”는 짧은 해명뿐이었다고 한다.

기자가 올해 처음으로 소집명령을 받은 훈련에서 ▲‘크로스’라고 불리는 슬리퍼와 ‘조깅화’를 신고 부대 영내를 활보하는 예비역간부 ▲‘형형색색의 티셔츠’를 입고 전투복 상의를 풀어헤친 예비역 위관장교 ▲전투복 하의와 전투화 끈도 묶지 않고 다니는 중사 등 다양한 인간군상을 봤다. 다수는 새로 선발된 인원들이었다.

군인복제령에 따라 전투복에 예비군 표지장을 부착한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전투복과 전투화 등이 없어 훈련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을 보고 정예예비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훈련을 정성껏 준비해 온 현역장병들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진다. 10~15만원 훈련보상비 이야기만 하는 전직 장교와 부사관을 보고 현역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도 도입초기보다 퇴행한 모습이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 군당국은 방역에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훈련에서 실시하는 코로나신속항원 검사를 하지도 않은 예비역 대위가 검사완료자 옆으로와 담뱃불부터 켜다. 예비역 중위 두명은 마스크를 벗고 딱붙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의 손에는 검사용 테스트기가 들려져 있다.

이런데도 현역 장병들은 서너 군간부 혹은 부대에 온 손님으로 생각해 최대한 친절한 자세를 유지하지만, 친절에도 선이 필요하다. 이들은 명령과 보상비를 받는 소집된 준군인이다. 계급과 직책도 있다. 대위가 중위에게 넌을 붙여 호칭하는 모습에서 제도의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captinn@metroseoul.co.kr

‘협치’에 조건은 없다



기지수첩
최영훈 (정치경제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 상황에서 떠오른 화두가 있다. 바로 ‘협치’다.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감염병과 공급망 문제로 인한 경제 불황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상황만 보면 여야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한 ‘협치’ 의지는 드러났다. 하지만 저마다 이유로 ‘협치’ 조건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여야가 서로 대치하고 있다.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협치는 어렵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낸다. 조건이 맞지 않아 협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

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은 서로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전임인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도 여야 정치권은 ‘협치’ 의지가 있었지만, 결국 서로가 제시한 조건이 맞지 않아 자주 다투었다.

지금 상황도 과거와 그리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협치 조건으로 ‘국무위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한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반발하면서 내민 협치 조건이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극복 등을 이유로 마련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처리 협조도 국민의힘이 사실상 협치 조건으로 내밀었다. 류성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로서 이번 추경을 통해 협치의 첫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잘못된 국무위원 인사를 바로 잡으라”며 협치 조건을 내밀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협조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무위원 임명은 철저히 하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극복과 더 발전하기 위해 정치권이 ‘협치’로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서로 조건만 내세우며 다투고 있다. 31년 정치인생을 마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이임사에서 “대화 와 타협, 공존과 상생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이자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 말대로 여야 정치권이 지금 한국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대화와 타협, 즉 조건 없는 협치를 하기 바라본다.

/choiyoungr@

오늘의 운세 5월 16일 (음 4월 1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48년생 골치 아픈 일은 미루지 말고 상의. 60년생 휴식이 없는 바쁜 하루에도 보람. 72년생 죽순은 비가 오면 더 푸르러 지니 고난은 참고 견디라. 84년생 분열은 단초는 내부에서 일기 시작.



37년생 아랫사람 말을 잘 경청. 49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이니 매사에 조심. 61년생 공과 사를 잘 살펴보라. 73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 가라. 85년생 중대한 일이 끝나면 논공행사가 관건이라 다듬어 인다.



38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갈등이 시작. 50년생 기쁨에 단비가 내리니 흡족하다. 62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 희망을 찾자. 74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86년생 인연을 만나게 되니 행복사자.



39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 앞만 보고 전진. 51년생 함께하는 상대를 의심하지 마라. 63년생 당장 급여가 적어도 보람을 가져서 미래를 발전시켜라. 75년생 자식 이 나보다 백배 낫다. 87년생 사명감이 발전을 지켜주는 힘인 듯.



40년생 협동으로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다. 52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방황시작. 64년생 돌 중 하나는 양보해야. 76년생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하지 마라. 88년생 농부가 밭을 두려워하면 빛나는 좋은 꿀을 얻지 못한다.



41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신중을. 53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65년생 능력이 없으면서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 77년생 검은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89년생 하루도 술 안 먹고 집에 들어가는 법이 없는데 어쩌라.



42년생 상대가 나를 높여 준다. 54년생 기회가 오니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한 때. 66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무르기도 어렵다. 78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90년생 해로움에서 은혜가 생기며 은혜를 해로움으로 갚는다는 말이 있다.



43년생 뒤늦게 기회가 왔으니 힘껏 노력. 55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67년생 위기를 기회로 잘 이용할 수 있다. 79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자식 사랑뿐. 91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하니 기다려라.



44년생 명예는 높아지나 실속은 그다지 없다. 56년생 글을 읽음은 집을 일으키는 근 본이라 했다. 68년생 선택은 자유이나 책임은 따를 것. 80년생 부모님의 오랜 적신이 내게로 돌아온다. 92년생 초년고생은 돈을 쥐어도 못산다는 속담.



45년생 오늘은 발로 뛰는 일을 찾아라. 57년생 명상을 하며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라. 69년생 바람이 불어도 정당한 기분은 흔들리지 마라. 81년생 표리부동(表裏不同)은 결국에 내 흥도 드러난다. 93년생 대부분 인생사 고락이 유전하는 것.



46년생 굴이 깊으면 산도 놓는 법이니 절망은 금물. 58년생 언쟁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70년생 유혹이 많으니 마음을 굳건히. 82년생 지는 일을 보면 나를 보는 듯. 94년생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양한 책도 읽어 폭넓은 상식도 키워라.



47년생 새롭게 시야를 넓혀보라. 59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71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하게. 83년생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대사회이다. 95년생 뒤통을 칠하는 것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창조적인 것을 찾도록.



김상회의四季 하늘의 뜻에도 법칙이

장자(莊子)가 말하길 하늘이 생물을 만들 때 이빨이 있으면 뿔을 주지 않고 날개가 있으면 다리를 두 개만 갖게 하였다 했다. 명리에서 하늘의 뜻이 공평함을 역설하기 위해 내 놓은 근거가 상보(相補)의 법칙이다. 이는 현상전이(現狀轉移)를 설명하는 물상(物象)의 대체(代替)와도 비슷한 개념이다. 가령 지위가 높으면 자식이 없고 자식이 많으면 지위가 낮다는 식의 발상이다. 또는 배가 부르면 수명이 단축되고 검약하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견해와 같다.

이는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옳다는 수분수의(守分隨義)의 교훈이 담겨있다. 청대의 기호암(紀曉嵐)이 지은 열미초당필기(閱微草堂筆記)에는 무수한 실화들이 담겨있는데 주로 동일한 사주의 삶을 비교한 예들이 많다. 동일한 시간에 태어난 주인집 자손과 하인의 자손은 성장기에 같은 복록을 누리지 못해 하나는 일찍 죽고 하나는 오래도록 목숨을 부지했다는 사례를 들어 상보의 법을 논한다. 또 같은 사주로 높은 지위를 누린 경우에는 말년이 처참하기도하고 비교적 낮은 복록을 구가하는 이는 말년이 평안했다는 식의 얘기로 전해진다. 따져보면 왕가나 각국의 재벌가도 비운의 역사를 지니지 않은 경우가 드물다.

이를 살펴보면 같은 상보의 법칙이 아주 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세상에 온갖 복록을 장구히 누리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끊임없이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드는 자가 존재하게 되니 현생의 인과뿐 아니라 전생(前生)에 이르는 영역으로 확장되면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다. 그러나 깨우침을 향한 부단한 노력과 발전이 지혜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니 명리(命理)는 가장 분명하게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법은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쫓아주세요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 | | | | | | | | |
|---|---|---|---|---|---|---|--|---|
| | 6 | | 2 | 4 | | 5 | | |
| 4 | | | 8 | | | | | 7 |
| | 8 | | | | 3 | | | |
| 8 | | 1 | | | | 8 | | 6 |
| 2 | | | | | | | | 5 |
| | 4 | | | | 1 | | | |
| 3 | | | 6 | | | | | 4 |
| | 8 | | 7 | 5 | | | | 9 |

| | | | | | | | | |
|---|---|---|---|---|---|--|---|---|
| 9 | | | 3 | 1 | | | | 8 |
| | | | 6 | | | | | |
| | | 9 | | 8 | | | | |
| 6 | 9 | | 3 | | 7 | | 5 | |
| | 7 | | 1 | 5 | 9 | | 6 | |
| 8 | 3 | | 7 | | 9 | | 1 | |
| | | | 5 | 3 | | | | |
| | | | 8 | | | | | |
| 3 | | | 2 | 6 | | | | 7 |

정답

| | | | | | | | | |
|---|---|---|---|---|---|---|---|---|
| 8 | 6 | 9 | 5 | 7 | 2 | 8 | 1 | |
| 7 | 2 | 9 | 8 | 9 | 1 | 6 | 2 | 8 |
| 8 | 2 | 1 | 8 | 2 | 6 | 7 | 9 | 9 |
| 9 | 8 | 6 | 9 | 1 | 8 | 2 | 7 | 2 |
| 2 | 8 | 7 | 2 | 9 | 8 | 9 | 1 | 6 |
| 9 | 1 | 2 | 6 | 7 | 9 | 8 | 8 | |
| 1 | 7 | 8 | 6 | 2 | 9 | 8 | 2 | 9 |
| 2 | 9 | 2 | 1 | 8 | 9 | 8 | 6 | 7 |
| 6 | 9 | 8 | 7 | 8 | 2 | 1 | 9 | 2 |

| | | | | | | | | |
|---|---|---|---|---|---|---|---|---|
| 2 | 6 | 9 | 9 | 1 | 2 | 7 | 8 | 8 |
| 2 | 8 | 1 | 2 | 8 | 7 | 9 | 6 | 9 |
| 7 | 8 | 9 | 8 | 6 | 9 | 2 | 2 | 1 |
| 1 | 7 | 6 | 2 | 2 | 9 | 8 | 9 | 8 |
| 8 | 9 | 8 | 6 | 9 | 1 | 2 | 2 | 7 |
| 9 | 2 | 2 | 7 | 8 | 8 | 6 | 1 | 9 |
| 9 | 9 | 2 | 8 | 7 | 6 | 1 | 8 | 2 |
| 6 | 1 | 8 | 9 | 9 | 2 | 8 | 7 | 2 |
| 8 | 2 | 7 | 1 | 2 | 8 | 9 | 9 | 6 |

과도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94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04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여성기업 키운다... 해외 판로개척 등에 2억 투입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 뒷받침 온라인 전시관·미니 홈페이지 구축 지원 실무 강의 등 여성경제인 역량 강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가 여성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나선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억원을 들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 추진하는 여성기업 육성 사업을 뒷받침해 여성의 창업과 경제 활동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여성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고도화 ▲여성기업 모바일 전자책 제작 ▲여성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여성 경제인 역량 강화 교육 ▲여성기업 해외 판로개척 등이다.

먼저 시는 코로나로 비대면 소비문

화가 확산돼 온라인 채널을 통한 여성기업의 판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내 여성기업 70개사를 대상으로 미니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전시관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온라인 상시 홍보 채널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여성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을 홍보,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성 기업에 대한 정보와 제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홈페이지와 주요 사업, 바우처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책도 펴낸다. 6월 중 참여 기업을 모집해 7~10월 전자책 제작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여성기업 홍보 책자 500부를 만들어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여성 기업을 홍보하는 동영상도 만든다. 시는 기업별 1분 이내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여성기업 비즈니스 플랫폼에 게재한다. 이를 통해 시는 기업의 홍보 채널을 늘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여성기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마케팅, 재무 등 분야별 실무 위주 강의를 통해 여성 경제인의 경영 능력을 제고하고, 전문

가·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코로나로 피해가 누적된 여성기업의 판매처 다양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여성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동남아 전자상거래 플랫폼(라자다) 입점을 지원, 제품 마케팅과 현지 판매를 돕는다. 시는 여성기업의 동남아 판로 개척을 통해 기업들이 신규 거래처를 확보, 경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울연구원원이 지난 2020년 6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관내 여성기업 380곳의 경영·기획·전략·인사·총무 부문 책임자를 대상으로 벌인 정책 수요 조사 결과 '경영안정 자금 지원'(38.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성년의 기쁨 함께 하세요"

천우각 광장서 성년례 재현행사

서울시는 올해 제50회 성년의 날을 맞아 이달 16일 남산골 한옥마을 천우각 광장에서 전통 성년례 재현행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화유산인 '전통 성년례'는 인생을 살아가며 거치게 되는 '관혼상제(冠婚喪祭)' 가운데 첫 '관(冠)'을 의미한다. 관혼상제에는 갓 관(冠), 혼인할 혼(婚), 죽을 상(喪), 제사 제(祭)가 있는데, 예부터 혼례를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관례나 계례를 먼저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행사는 성년이 됨을 알리는 고천의식을 시작으로, 성년의 결의 및 가례(의복과 족두리 착용), 초례(차와 다과), 수훈례(수훈첩 증정), 감사의례(부모님께 큰절)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행사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설비공사원가 산정 해설서 개발

과잉 설계 차단... 예산낭비 방지 기대

서울시는 기계·전기 설비공사의 공사원가 중 노무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해설서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단위 물량(자재)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의 품을 수치화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품셈은 건설현장의 신재료·신기술 도입, 공사장비의 다양화에 맞춰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며 "품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경우 정확한 품셈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표준품셈이 잘못 적용돼 발주가격이 낮게 산정되면 시공자나 공급자가 손해를 보게 돼 부실공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며 "반대로 발주가격이 너무 높으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뿐 아니라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표준품셈 해설서 개발 배경을 밝혔다.

시는 이번에 개발된 '전기공사 표준품셈 해설서'와 '자동제어설비 해설서'가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과잉 설계 소지를 원천 차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공사 표준품셈 해설서는 표준품셈 이해 및 실제 적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표준품셈 일반 ▲표준품셈 관리체계 ▲표준품셈 적용기준 ▲접지공사 ▲건축물 설비공사 해설로 구성됐다.

자동제어설비 해설서는 자동제어시스템 구성, 설계절차, 실제 설계예시를 상세하게 기술해 초보자도 설비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미래서울 이끌 185개 기업 윤곽

서울시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선발 입주공간·투자유치 등 성장지원

서울시는 32개 캠퍼스타운에서 창업경진대회를 열고, 창업공간·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85개 미래유니콘 기업을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지역대학이 협력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2017년 첫발을 땀다.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에는 ▲입주공간 ▲창업지원금 ▲투자유치 ▲창업교육·컨설팅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 패키지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는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

/김현정 기자

이라며 "바이오·디자인 등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 오픈이노베이션 도입 등 캠퍼스타운별 차별화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캠퍼스타운은 자체적인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GA·Global Accelerating)을 개설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한다. 건국대 캠퍼스타운은 칭화대 기술지주, 북경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해 창업기업과 중국 현지 벤처투자사·기술지주펀드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고려대, 서강대, 한성대, 건국대 캠퍼스타운이 예비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캠퍼스타운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 이용 모습.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 '복직'

열흘간 5000명 이상 방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5일 개장한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에 열흘간 5000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는 서울시의 첫 거점형 어린이 놀이터로, 규모가 6000㎡에 이른다. 180㎡ 크기의 그물망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는 대형 놀이기구,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네, 높이와 모양이 달라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철봉, 급수시설이 연결된 모래놀이대 등이 마련됐다.

이 놀이터는 지명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된 '조경작업소울'의 작품이다. 도심의 소규모 놀이터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폭넓은 난이도의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어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2 | 해질 / 19:35

5월 16일 (월)
음력 : 4월 16일

수도권 날씨
12~23℃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연천 8/24, 동두천 9/24, 가평 5/24, 양평 8/24, 용인 11/22, 평택 7/24, 수원 11/22, 인천 13/20, 서울 12/23, 파주 7/22, 백령도 11/1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고양시, '경기 관광특구 진흥계획' 평가 1위

지정요건·지속가능성 등 고평가

고양시는 경기도가 진행한 '2021년도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에서 파주, 수원, 동두천, 평택을 포함한 경기도 5개 관광특구 중 고양시가 관광특구 평가 1위를 차지했다.

시는 2020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비대면 온라인 푸드&비어 페스티벌 개최 ▲고양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한 온택트 버스킹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고양관광정보센터의 창의적 활용 ▲고양 인근 지역과의 연계 코스 운영 및 상황에 따른 기획노선을 시도한 고양시티투어도 호평을 받았다. 그 외에도 특구 지정요건과 잠재성, 지속가능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거리두기 풀리니 회식 갑질도 급증 "회식 안 가니 퇴사 압박"
- ▲ "중대재해법 개정" 예고...경영계 요구 얼마나 수용할까



- ▲ 야외 마스크 벗자 '길거리 흡연'도 증가...시민들 불편 호소
- ▲ 육아기 근로자 '주 15~35시간' 단축 근무 확대 추진



- ▲ '스승의날' 폐지 원하는 교사들... "존중 없고 부담만"
- ▲ 대법 "2014학년도 수능 출제오류 국가배상책임 없어"



[라이프]
결제편의+빠른배송
韓 성공신화
아이허브
니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친구같은 '생막걸리'부터 MZ저격 '달빛유자'까지

“40년 경험으로 막걸리 세대교체 앞장설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서울장수
염성관 연구소장

서민들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술을 꼽으라면 막걸리를 꼽을 수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막걸리 기업은 1962년 설립된 서울탁주제조협회일 것이다. 오랜 역사와 우수한 제품력을 토대로 오늘날까지 막걸리의 정서를 알리고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서울탁주제조협회의 산하법인 서울장수주식회사에서 1996년 출시한 '서울장수 생막걸리'는 출시와 함께 대표 막걸리로 자리잡았고,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다. 서울장수 브랜드가 꾸준히 성장하기까지는 염성관 서울장수 연구소 소장의 탐과 노력이 있었다.



염성관 서울장수 연구소 소장이 서울장수 생막걸리와 달빛유자 막걸리를 소개하고 있다.



염성관 소장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 /서울장수

1980년 주류 업계에 뛰어든 염성관 소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장수 연구소장으로 몸담고 있다. 오랜 경력과 내공이 쌓였음에도 막걸리 업계 뿐 아니라 이종업계의 트렌드를 공부한다고, 작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현장감을 끊임없이 익히는 것이 염 소장의 원동력이다.

염 소장의 하루는 데일리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팀원들과 함께 연구 진행 상황 점검 및 협의 시간을 갖는다. 현재 연구 개발 중인 제품은 물론, 경쟁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주질 관능 검사(여러 가지 품질을 인간의 오감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와 시음을 진행한다.

서울장수 제품 관능 검사는 매주 1회 모든 제품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유통된 제품도 직접 구매해 품질을 테스트한다.

서울장수는 인천공장 외에도 서울에 6개 제조장(구로, 강동, 서부, 도봉, 성동, 태릉)을 운영중이다. 간혹 제조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도 연구소에서 담당한다.

서울장수 막걸리는 엄격한 품질 관리에 의한 품질 균일화 및 유통 중 발생하는 천연 CO2 덕분에 깔끔한 청량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 식품연구원의 46종 전통 누룩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프리미엄 효모균 '보올라디'를 적용해 막걸리 특유의 감칠맛과 더욱 풍부한 탄산감을 구현했다. 장수 생막걸리 한 병(750ml)에 최소

1980년부터 주류업계에 몸 담아 2008년, 서울장수 연구소장으로 매주 1회 모든 제품 품질 테스트

편차 없는 청량감 위해 안정화 신경 위생관리 시스템 도입, 해썬 획득 막걸리 새로운 비전 제시하고자



750억 마리 이상의 보올라디 효모를 함유해 생균 형태로 섭취할 수 있다.

염 소장은 “개발 과정에서 차별화된 맛과 신선도, 청량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생막걸리만의 신선함과 특 쏘는 청량감에 편차가 없도록 주질 안정화를 위한 생산 설비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주류 중 특히 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짧고 그만큼 신선도가 중요하다.

그는 “작업 위생과 품질, 신선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항상 깨끗한 환경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제조하도록 강조한다”며 “신선도는 출하 후 유통 환경(유통 중 냉장 온도 관리)에도 크게 좌우되므로 생막걸리 본연의 맛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유통 시스템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 소장이 꼽은 가장 애정이 가는 상품은 '서울장수 생막걸리'다. 서울장수의 연구소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 함께 해 온 막걸리이기에 때로는 직장 동료,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다고.

2010년 서울장수는 막걸리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인천 공장을 설립하면서 발효 공정의 자동화, 원료의 공기 이송 방

법 등 새로운 시스템들을 도입한 바 있다. 또 서울 제조장의 공정 개선을 추진해 쌀증자 방법, 발효 온도 및 기간 표준화, 분석을 통한 품질관리 방법 등을 마련함으로써 균일화된 품질의 막걸리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 제조장은 안전성과 위생성 보증을 위해 원재료 관리, 발효부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해썬(HACCP)을 획득했다. 이는 염 소장이 근무하면서 얻은 가장 뿌듯한 성과다.

“서울장수뿐만 아니라 막걸리 업계 자체가 전반적으로 제품력이나 기술력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고, 여전히 품질 개선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유의미한 역할을 할 때나 아직도 기여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뿌듯하죠. 앞으로는 '인생막걸리' '달빛유자' '독도막걸리' '막사' '숯막걸리' 등 막걸리의 세대 교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제품을 개발해 의미있는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요.”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방탄복 입고 뉴욕주 슈퍼마켓서 무차별 총격...10명 사망 /사진 뉴시스
▲상하이 내일부터 마트 등 영업허용...봉쇄 50일만 점진적 해제

▲UAE 새 대통령에 무함마드 아부다비 왕세제 선출
▲“미얀마군 진주 마을 가옥서 불탄 시신 27구 발견”



▲우크라 “러시아, 마리우폴서도 독립 투표 준비”
▲인도 밀 수출 금지령에 G7 비판...이집트는 예외 적용 요구 /사진 뉴시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창립 60주년
중소기업중앙회

사장님을 지키는 든든한 산 노란우산

그곳에 가면 늘 반겨주는 산처럼
변함없이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산처럼
노란우산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창립 60주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창립 60주년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가입 축하 이벤트!

- 기 간 : 2022.5.16(월) ~ 6.30(목)
- 내 용 : 위 기간 내 신규 가입자 중 6,000명을 추첨하여 고급 우산(1개) 또는 영화티켓(2매)을 드립니다
- 발 표 : 7월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개별 연락 드립니다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https://www.8899.or.kr>)를 참고하세요

※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 제도입니다